

2020년 제25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우수작품집**







# 글 심는 순서

## 대상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 이다온 | 남양주 심석초등학교 3학년 ..... 9

## 금상

뜨란채 수직농원의 재탄생, 빈 아파트에서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 이태의 | 부천 소안초등학교 4학년 ..... 15

일요일 아침 백두산 다녀오기 | 이연주 | 부천 상인초등학교 6학년 ..... 18

## 은상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 장연우 | 서울 영동초등학교 4학년 ..... 25

2040으로 고고! | 장재원 | 대전 성룡초등학교 2학년 ..... 28

코로나19로 인해 발견한 우리 지역의 소중한 | 김문호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 31

바이오 메이커 | 김희성 | 김포 고촌초등학교 6학년 ..... 34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팔공산에는 신승겸 장군 동상! | 제갈윤서 | 대구 영신초등학교 2학년 ... 37

코로나19, 뒤바뀐 미래 | 최은지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 40

## 등상

외갓집 가는 길   박정연   대전 성룡초등학교 3학년	47
내가 만드는 자연도시!   이제인   고양 흥도초등학교 4학년	50
사소한 것   송예진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53
연어야 안녕!   이다솜   울산 문현초등학교 2학년	55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   양서준   안양 귀인초등학교 2학년	57
나의 비밀의 정원 ‘도동서원’   이주오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60
세계에 사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채준우   부천 상인초등학교 3학년	62
아빠의 고향은 남해 상주리입니다.   류재진   창원 사파초등학교 4학년	64
기억이 공존하는 산곡 1동   이종수   인천 부마초등학교 6학년	67
내가 꿈꾸는 마을   권지환   제천 홍광초등학교 2학년	69
개발! 생태계의 악마   도예원   부천 상인초등학교 3학년	71
평화를 사랑한 가야인의 고장, 김해!   정한울   김해 울산초등학교 5학년	73
20년 후 나의 하루   주이솔   부산 화정초등학교 1학년	76
2040년 우리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이도연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79
내가 만약 대구시장이라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래요   손재원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82
행복이 가득찬 ‘봉산 통새미’   성지민   창원 자여초등학교 2학년	85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우리 국토   김민송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87
가치 있고 같이 있는 우리 국토   이송윤   부천 상일초등학교 5학년	90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국토   여예령   서산 성연초등학교 5학년	94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   조민정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	97
마동석 아저씨처럼 건강해지는 우리 동네 ‘양천 도시 농업공원’   권서우   서울 지향초등학교 2학년 .....	101
사라지지마! 우리 동네야   이은서   대구 사월초등학교 2학년 .....	103
서준이 형에게   임하준   창원 자여초등학교 2학년 .....	105
내가 꾸 꿈   이민준   서울 자운초등학교 2학년 .....	107
도시 만들기   김도연   창원 사파초등학교 5학년 .....	110
전국을 달리는 꼬마 여행가   윤지원   대구 왕선초등학교 5학년 .....	112
국토 지킴이가 될거야!   최아영   수원 일월초등학교 2학년 .....	115
미래의 내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   강수안   제주 아라초등학교 6학년 .....	118
할아버지 농장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도예찬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	121
두근두근, 기대되는 시간   구동윤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	123
심사평   상상과 경험이 잘 버무려진 우리 국토 이야기들 .....	127
입상자명단 .....	130



#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이다온 | 남양주 심석초등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심석초등학교 3학년 국화반 이다온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이유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보기 힘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는 산과 나무들 꽃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프신데도 매일 저를 학교에 등하교 시켜주십니다. 그때마다 차 안에서 엄마는 “다온아, 하늘 좀 봐”, “다온아, 구름 좀 봐”, “다온아, 단풍 좀 봐”, “다온아~ 다온아~”

서울에서 살 때 우리 가족은 산책을 나가면 자동차 매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도 어쩔 때는 나쁜 아저씨들이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픈 엄마와 아빠와 저는 매연과 담배냄새 때문에 다시 집으로 피해 도망갔지만

집에 와서도 문도 열지 못하고 공기청정기를 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2년 동안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집에 오시고, 또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집에 오시고를 반복하다가 우리 가족은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해도 주차장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며 아빠가 매번 화가 나셨는데 지금은 우리 아빠도 달라지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호만천’에 매일 걸어서 산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마산과 백봉산을 앞뒤로 호평동 중심으로 지나가는 최고의 산책로인 호만천은 천마산에서 시작하는 사능천, 왕숙천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호평과 평내 주민들의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오남읍, 화도읍에 걸쳐 있는 높이 810.3m의 큰 산으로 690종의 식물이 자라며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입장료도 무료인 ‘천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에 이렇게 대단하고 멋진 산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집안에서 365일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마, 아빠께 감사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최고의 자랑 세 번째는 하수처리장을 예술품으로 만든 ‘피아노 폭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47-4에 위치해 있고, 높이 61m, 길이 91.7m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 올려 흘러내리게 합니다.

물의 소중함과 하수처리과정 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이 있고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등산길과 산책길이 있어 자연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놀 수 없지만 엄청난 크기의 무료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살 때도 꼭 놀러왔던 곳입니다.

이 밖에도 평내 약대울 물놀이터, 연꽃이 엄청 많은 북한강변 물의 정원, 삼패한강공원 등등 아름다운 우리 고장 자연을 심지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남양주가 저는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나쁜 공기에 도망 다니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또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운아, 하늘 좀 봐.”

“다운아, 구름 좀 봐.”

“다운아, 나무 좀 봐.”

“다운아, 다운아.”

요즘에도 가끔씩 우리 엄마는 며칠씩 병원에서 자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행복. 어른들은 모든 것을 잃어야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만 해도 아까운 세상에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지금이 저는 최고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심석초등학교 3학년 국화반 최고의 이민재 담임선생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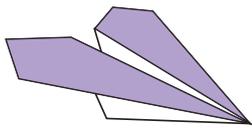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 금상







국토교통부장관상

## 뜨란채 수직농원의 재탄생, 빈 아파트에서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이태의 | 부천 소안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태의’라고 합니다. 저는 빈 아파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는 ‘도시계획가’입니다.

이번에 새로 재탄생하게 된 아파트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제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살았고, 62살이 된 저희 엄마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계획의 목적은 주민들이 떠나서 빈 콘크리트 박스가 되어버린 이 아파트를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계획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동하여, 경기도 외각에 있는 이 동네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20년 전인 2020년만 해도 약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200세대만 남았습니다.

아파트가 비면 중간중간 사람이 살지 않는 층이 생겨, 범죄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테고, 그 아파트 단지는 유행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남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주정책을 펼쳤고, 이 아파트는 빈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가인 제가 이 빈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앞서 이 빈 아파트를 철거할 것인지, 남겨놓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빈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고, 철거하고 남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에 동네 주민들의 추억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가 십대 때 봤었던 동네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억의 힘이 대단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동네 환경의 일부가 된 아파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빈 아파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정하기 위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파트 활용방법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아파트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지구 녹화 나무심기 캠페인 등이 활발하므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프란체 아파트 꼭대기 층이어서 작은 옥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직접 키우셔서, 식탁에 그 채소들이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은 농원을 가꾸며 여가시간을 즐기던 모습에서 ‘뜨란채 수직농원’ 계획의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직농원’을 최종 계획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직농원은 수직공원과는 다르게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소나 과일을 직접 기를 수 있습니다. 인공 햇빛으로 빛도 비춰줍니다. 수직농원은 이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물을 가꾸며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여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가꾼 식물을 팔아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나무가 많아져 지구환경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뜨란채 수직농원’이 생긴 뒤, 저희 엄마는 식물을 가꾸며 취미생활도 보내고, 돈도 벌고 있습니다. 식물을 가꾸는 것이 생각보다 즐겁다고 하네요. 그 돈으로는 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공기가 더욱 나아져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를 지킬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손녀, 손자와 함께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 관찰일기도 쓰고 계시더군요. 얼마 전에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께서 직접 기르신 싱싱한 상추도 받았습시다. 아주머니는 식물을 팔아 생긴 돈으로 식물 관찰일기를 쓸 공책을 사시더군요.

제가 엄마, 아빠의 집에 가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 좋았습니다. 수직농원을 보니 저도 우리 집에 식물을 더 많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나이가 되었을 30년 후인 2070년에 우리 동네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때도 11살과 31살의 제 기억이 남아있는 동네가 되어있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 일요일 아침 백두산 다녀오기



이연주 | 부천 상인초등학교 6학년

“내일은 산이나 갈까?”

“좋아요!”

6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우리 가족은 일어나자마자 서울역으로 향했다. 열차표를 끊고, 곧바로 플랫폼으로 향했다. 그러자 안내 방송이 울렸다.

“백두산행 열차를 타실 분은 14번 플랫폼으로 와주세요.”

우리는 표와 좌석을 스캔한 후 전자식 계단을 이용해 기차에 올랐다. 곧이어 열차는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차의 움직임은 매우 부드러웠다.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하게 출발하는 이 ‘에어열차’는 특별한 열차구조와 공기의 움직임이 만나 이루어진 친환경 열차였다. 전기나 연료 없이 기차 밑면의 특별한 구조로, 그것도 화학물질 없이 공기가 밀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 힘도 센 터라 약 400km로 달릴 수가 있었다.

가족들과 맛난 수다를 떨다보니, 어느 틈에 평양에 도착했다. 백두산 가는 길에 잠시 들를 수 있는 곳으로 역내에 있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이곳에는 식당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지만 우리 가족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전통 냉면을 먹었다. 지난번에도 평양에 와서 먹었던 냉면이지만 다시 먹어도 언제나 맛있는 것 같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익숙한 거리들을 뒤로뒤로 보내며 백두산에 도착했다. 이곳 또한 자주 오는 곳이지만, 매번 올 때마다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백두산은 따사한 날씨에 오는 게 제일인 것 같다. 드넓은 경치를 보니 속이 탁 트이는 기분은 역시 최고였다. 한쪽에는 울긋불긋한 꽃들이 수를 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몹시나 추워 보이는 푸르름이 기대어 있었다. 손끝은 가볍게 움길 때마다 촉촉해졌고 마음은 높고도 높은 하늘의 새털구름만큼 가벼워졌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서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경치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볍게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행운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등산이 아닌 산책으로 둘러보면서 만끽할 수 있는 백두산의 품은 마냥 넉넉했다.

모든 구경을 마치고, 다시 열차에 올라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았다. 좌석 스크린에는 에어열차를 만드신 교수님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다.

“조금씩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니,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기분이랄까요. 하하, 관심이 제 인생을 바꾸었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몇십 년 사이에 단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결국엔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을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특권을 주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뜻 깊은 추억까지 선물할 수 있는 열차까지 만들게 되었으니 ‘관심’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이 힘은 단 한 가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술로 이어진 관심은 뿌리와 가지를 뺏어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해왔고, 그 발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상 자동차들도 이제는 공기로 움직이고, 온 세상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국토는 건강한 흙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매연이 없어졌다고, 공기만 깨끗해진 세상이 아니다. 특히 2020년과 2040년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모두 겪었던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달라진 세상의 차이를 몸소 느끼고 그 차이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훤히 보일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환경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듯하다. 공기뿐만 아니라 땅속까지 생각하며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가슴 벅찬 이야기로 가슴이 설레인 틈에 서울 도착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금 마주한 이 상황들을 비현실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상상 속의 일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린 당당히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연과 과학이 갖는 조화로우미와 위대함에 감사함을 가지며, 이 세상의 모든 오염들이 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토를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2040년, 또 다시 20년 후, 그 다음 20년 후를 설계하면서 말이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면서 내 주머니에서 전자수첩을 꺼내 들었다. 내가 과학 연구원으로서

개발 중인 ‘재활용 쓰레기 물건 분해하기’ 실험 관련 아이디어 도안이 생각났다. 서울 밤 하늘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함으로 온몸을 감싸 안았다.

“나도 곧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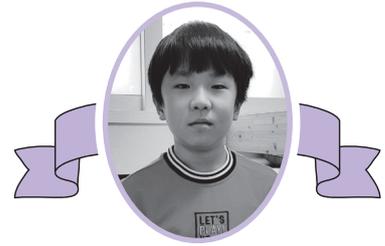






국토연구원장상

##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장연우 | 서울 영동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히 집에서 보내던 엄마와 나는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 다녀오기로 했다.

끝날 줄 모르는 긴 장마 때문에 할머니네 가는 날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대화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에 처음으로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거여서 두근거리고 신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 보고 또 봐도 좋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엄마와 나는 깜짝 놀라서 창밖을 쳐다봤다. 택시는 남한강 위에 있는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 밑으로 처음 보는 시커먼 물줄기가 화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옛날에 보았던 투명하고도 파란 강물은 사라지고

강에 있던 작은 섬들도 사라졌다.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한강을 자꾸자꾸 뒤돌아보며 슬픈 기분이 들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고 조금 더 걸어가자 저 멀리 우산을 쓰고 우리를 기다리는 외할머니가 보였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울 것 같았다.

“할머니!”

“그래그래, 오느라고 힘들었지.”

할머니 손을 잡고 마당에 들어선 나는 그 자리에 멈춤 해버렸다. 여름이면 텃밭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오이, 고추, 토마토는 보이지 않고, 구석에 작은 가지 세 개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비가 많이 와서 썩어서 다 뽑아버렸어. 내년엔 다시 심자. 저녁에 가지밥 해줄까?”

“아니에요, 할머니.”

쪼그리고 앉아 가지를 보고 있으니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당 뒤쪽에 가봤지만 거기에는 빗물에 쓸려온 나뭇가지랑 작은 돌멩이랑 흙더미가 쌓여있었다. 그 자리에는 나팔꽃과 호박넝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사실은 외할머니네 가면 텃밭에서 야채 친구들과 인사하고, 모기와 싸우고, 이름도 모르는 꽃들을 내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두는 일들이 제일 신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속상한 마음에 점심도 대충 먹고 마루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엄마가 살그머니 내 옆에 앉았다.

“연우야, 너가 좋아하는 쓰담쓰담 노래나 들을까?”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음악소리가 들렸고, 투닥투닥 빗소리랑 음악이 박자를 맞추고, 박자 소리에 내 마음도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야옹, 야옹.” 앞집 강아지집 지붕 위로 배 쪽은 하얀 털, 등 쪽은 까만 털을 가진 고양이도 쓱 지나갔다. 못 보던 고양이 친구였다. 그리고 보니 길가에 있는 대추나무도 훌쩍 커져있었다. 대추가 많이 달리진 않지만 추석에 시골에 오면 대추나무를 흔들어 몇 개씩은 떨어져서 주워 먹기도 했었다.

“꼬끼오!” 특이하게 해가 질 때면 목청 높여 우는 꼬꼬도 그대로 살고 있었고, 옆집 담벼락에는 큰 호박 2개가 달려있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내 눈에는 새로운 시골 그림이 보였다.

조용히 조용히, 천천히 천천히 시간이 살금살금 지나갔고 흐린 날씨 때문에 총총총 하늘에서 숨박꼭질하는 별들은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맛있는 할머니표 시골 된장찌개와 노랫소리 같은 빗소리에 만족하며 또 한 번의 추억을 마음속에 저장했다.

다음날 아침 엄마와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에 또 다시 남한강과 만나게 됐다. 물살은 똑같이 거셴지만 어제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옛날에 보았던 한강이 조용하고 차분한 형이었다면 요번에 만난 한강은 급하지만 씩씩한 동생이다. 외할머니 시골마을도 예전에는 예쁜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꾸미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랑 작별인사를 하고 서울에 온 나는 시골에서 찍었던 사진을 출력해서 미니사진 노트를 만들었고 내 생각을 짧게 써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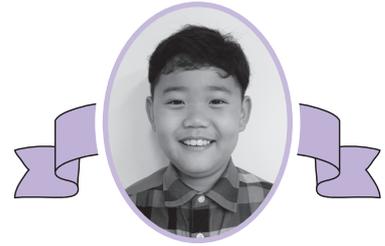
산, 바다, 하늘은 늘 따뜻한 엄마처럼 우리를 감싸준다. 하지만 가끔은 상처를 입고 낮은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면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를 낮게 해줘야겠다.

우리 느린 걸음의 농촌과 빠른 걸음의 도시야,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국토연구원장상

## 2040으로 고고!



장재원 | 대전 성룡초등학교 2학년

“친, 거실 청소를 부탁해.”

나는 로봇공학자다. 친과 환경은 내가 만든 로봇인데 친은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환경이는 정원을 관리한다. 로봇들은 태양열 에너지로 충전하며 적은 양의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2021년 내가 열 살 때 인류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발표가 있었다.

“여러분, 빙하가 녹고 지구의 동식물이 죽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5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50%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고, 쓰레기 더미로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다. 미세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먹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먼저 죽었고, 온실가스로 지구가 뜨거워지며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났다. 갑작스런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이 일어났다. 당장 일회용컵,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법이 생겼고, 심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은 벌금을 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었고 자동차와 비행기 이동을 줄였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을 합쳐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2040년 현재 나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무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에 타지 않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집이다.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은 모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귀여운 야생동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건물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동물과 식물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법 때문이다.

로봇은 자연친화적인 동시에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내가 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시골 곳곳에도 그 지역에 맞는 로봇이 일을 하고 있다. 거리에는 교통로봇이 도로가 막히지 않게 교통신호를 조절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준다. 드론로봇은 하늘에서 도둑, 유괴범 등을 잡아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환경로봇은 쓰레기를 버릴 때 얼굴인식을 해서 바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양이 많거나 일회용품을 많이 버린 사람에겐 벌금을 물린다. 나는 지난주에 생일파티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렸더니,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오늘의 쓰레기는 11명이 일주일 동안 버리는 쓰레기양입니다. 쓰레기양을 초과했으므로 환경비용이 청구됩니다.” 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로봇은 집안에도 있다. 집집마다 필요한 로봇은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이다. 할머니한테는 안마로봇이나 반려동물봇이 인기 있다. 우리 집엔 최근에 내가 만든 로봇이 들어왔는데 바로 베이비시터봇이다. 백일 된 우리 아기에게 분유를 타주고, 졸리면 엄마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나는 아기가 울 때 왜 우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베이비시터봇은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한다. 덕분에 아내와 나는 휴식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다.

로봇공학자로 우리나라를 빛낸 나는 어제 뉴스에 초대되었는데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했다.

“박사님, 지금 개발 중인 로봇은 어떤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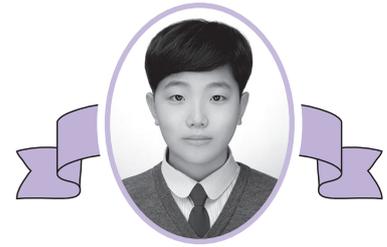
“저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로봇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만드는 로봇이 새와 고양이와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 나무를 살린다면 기꺼이 연구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돕기 위한 로봇을 계속 연구할 것이다. 자연과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을 만들어가겠다.



국토연구원장상

## 코로나19로 인해 발견한 우리 지역의 소중함



김문호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2020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다.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여전히 힘들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는 2~3월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감염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냈다. 대부분의 대구사람들은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외출 외에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창밖을 내다봐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학교도 학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5월부터는 격일이긴 했지만 학교도 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외출 할 때도 마스크를 껴야하는 이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지만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속상했다.

우리 가족은 1년에 1번 이상 꼭 해외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도 조심스럽게 되어 버렸다. 주말이 되어도 주말 같지 않은 생활이 계속되자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해 아빠, 엄마에게 화도 많이 났던 것 같다. 그런 어느 날 아빠가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시더니,

“이번 일요일에는 우리도 외출해서 산책하고 오자.” 하셨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야구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닌 산책에 마음이 설렘다.

일요일 아침,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졌다. 간단하게 물과 간식을 가지고 집을 나와 향한 곳은 동촌역이었다. ‘동촌 둘레길 걷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동촌 둘레길은 1코스 - 대구선 옛길 6.3km(동촌역 - 아양 기차길 - 지저동 벚꽃길 - 옹기종기 마을 - 동촌역사(작은 도서관) - 용계역)와 2코스 - 동촌 나루터길 6.3km(용계역 - 율하교 - 금호강 생태공원 - 동촌역)로 나뉘는데 두 코스 모두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우리는 1코스를 선택해 걷기 시작했다. 동촌역에서 해맞이 다리로 강둑을 올라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 내판을 바로 발견할 수 있고 해맞이 다리를 건너서 금호강을 따라 걷기 시작하니 강 바람도 시원하고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향기가 너무 좋았다. 잘 정돈된 강변을 따라 피어있는 연한 주황색의 꽃이 너무 예뻐는데, 엄마가 원추리꽃이라고 하셨다. 처음 들어보는 꽃 이름이었는데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다. 아양철교 밑을 지날 때 엄마가 강물에 비친 다리의 모습이 멋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잔잔한 강물이 거울처럼 다리를 비추고 있었다. 평소 차를 타고 지나칠 때는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양철교 밑에는 슈퍼맨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그림이 있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재미있는 볼거리였다. 계단을 통해 아양철교 위에 올라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 내부에 전시된 다양한 그림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시와 산문

있는 아양 기찻길’이라는 글이 새겨진 조그만 바위와 만년필 모양의 조형물이 반긴다. 대구에선 아양공원 안에 시와 산문을 전시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복슬아, 정말 고맙다’라는 글이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았다. 시와 산문들을 구경 후 큰길을 따라 걷다보니 ‘옹기종기 녹색 마을’에 도착했다. 동대구역과 영천을 잇던 대구선이 외각으로 옮겨가고 대구선 동촌공원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나무들이 초록으로 만들어낸 아치 모양의 그늘도 마음에 들었고 바닥에 남아있는 옛날 기찻길의 흔적도 좋았다. 기차가 다니던 철교는 지금은 육교로 바뀌었는데 엄마는 어릴 때 기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친 적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담장에 그려진 벽화들도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옹기종기 보는 재미가 있는 마을이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작은 도서관이었다. 옛날에는 동촌역사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산뜻하게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 이제는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철도길이 일부 그대로 남아있는데 철도옆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나누는 가족끼리의 대화도 좋았다. 용계역을 마지막으로 두 시간 남짓한 우리의 ‘동촌 돌레길’ 투어가 끝이 났다.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느끼는 공기의 상쾌함은 평소에 상상하지 않았던 행복이었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짧은 산책에서도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알게 되다니! 늘 옆에 있어 소중한 것을 몰랐던 것이다. 아빠는 보물찾기하듯 우리 지역 대구 탐방을 자주 하셨다. 다음번 보물은 내가 찾아서 가보고 싶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 바이오 메이커



김희성 | 김포 고촌초등학교 6학년

우연히 초등학교를 지나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한참을 보고 있으니 아이들이 와서 말을 걸었다.

“아저씨, 왜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

“봄에는 황사가 심하잖아.”

봄 황사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가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둘러보니 마스크를 한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황사요?”

“하늘 완전 파란데요?”

습관처럼 마스크를 쓴 내 모습이 아이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 것 같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마스크라니 ‘내가 과학자 맞나?’ 하는 생각에 우습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는 마스크가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내 학교생활은 답답하게 늘 마스크를 써야만 했고, 친구들과 대화도 운동도 금지였다. 온라인수업을 통해 선생님, 친구들과 화상으로 인사를 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마스크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맑고 푸른 하늘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준 것 같아 어른으로서 과학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개발한 ‘바이오 메이커’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간편하고 사용이 쉬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다.

20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비행기, 자동차의 운행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덕분에 뜻밖에 맑은 하늘을 되찾았다. 그때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도 어른들은 다시 찾은 맑은 하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도 그때 결심했다.

“나는 나와 가족들을 집콕하게 만들고 매일 입는 옷처럼 매일 마스크를 하게 만든 코로나19 대신 미래의 아이들에게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선물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될 거야.”

분리수거 방법이 간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이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나는 푸른 하늘도로 위를 스카이카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며 연구실로 가고 있다.

어릴 적 자주 보던 회색빛 하늘대신 맑고 푸른 하늘도로 위를 달리다보면 내가 꼭 하얀 문개구름이 되어 떠다니는 것 같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계속 미소 지으며 하늘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지금처럼 아이들이 신나게 밖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 연구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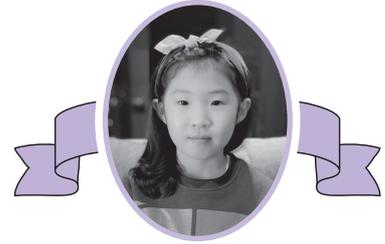
10년 후 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다.

“아빠, 마스크가 뭐예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팔공산에는 신승겸 장군 동상!



제갈윤서 | 대구 영신초등학교 2학년

“엄마! 저거 이순신 장군 동상이야? 잠깐만 차 세우고 구경하다 가면 안돼?”  
나의 쌍둥이 동생이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학교다. 학교에서 집까지 꽤 먼 거리이긴 하지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 학교 가는 길이 즐겁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주로 엄마 차로 학교를 다닌다. 오늘은 들릴 곳이 있어 평소와 다른 길로 오다가 ‘파군제 삼거리’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 우뚝 서 있는 어떤 동상을 보게 되었다. 쌍둥이 남동생은 이 동상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인 것 같다고 했다. 엄마는 누구의 동상인지 확인을 하려고 동상을 조금 지났고 ‘신승겸 장군’의 동상인 것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동상을 조금 지난 곳에 신승겸 장군의 유적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시간도 있는데, 궁금한 김에 신승겸 장군 유적지에 들렀다 갈까?”

엄마는 우리에게 제안하셨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발열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했지만, 오랜만에 소풍을 나온 느낌이었다. 그곳에는 진한 핑크색 꽃이 많이 피어 있었고, 그 꽃은 배롱나무꽃이라고 했다. 유적지 설명을 보니, 신승겸 장군은 왕인 왕건을 도와 함께 고려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왕건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왕으로 변장해서 대신 죽었다고 한다. 신승겸 장군이 죽은 자리가 지금 유적지가 있는 자리이고, 왕건이 슬프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이곳에 충절비라는 곳을 세웠다고 했다.

“어머! 대단한 장군이었잖아! 애들아!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대단한 분이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구나... 대구에 이름이 신기한 곳들이 많다고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네.” 라고 하시며 엄마는 왕건과 관련된 대구의 지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엄마는 서울에서 이곳 대구로 시집을 오셔서 우리만큼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 많으며 감동한 얼굴이었다.

설명으로는 우선 우리 학교가 있는 팔공산은 원래 공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에서 왕건의 여덟 장수가 죽었다고 해서 팔공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신승겸 장군 동상이 있는 ‘파군제 삼거리’의 ‘파군’도 왕건의 군대가 크게 패했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했다. 크게 진 왕건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이제 적들이 쫓아오지 않겠지?’ 라고 안심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안심’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엄마는 낯선 지명들이 역사적인 곳이었다며 흥분하셨고, 우리는 학교가 있는 팔공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대구의 모든 곳이 중요한 장소인 것 같은 느낌이다. 역사를 배우고 체험을 하려면 경주나 박물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이 박물관이었다. 멀리 안 가도 주변을 둘러보면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신승겸 장군 유적지에 많이 피어있는 진분홍색 배롱나무꽃을 보면서 “왕건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며 흘린 신승겸 장군의 피처럼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거야. 잊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동상을 발견한 건 우리인데! 그동안 모르는 거 알게 되고 이렇게 엄마랑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건 다 우리 덕분이라고! 엄마가 잊지 마!”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우리나라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는 사실을!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 코로나19, 뒤바뀐 미래



최은지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올해 2월 19일을 난 잊을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 때문에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안 가도 된다는 것, 아니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 마냥 좋았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인 대구의 코로나19 하루 확진환자가 50명, 148명, 340명, 741명 등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 아빠는 환자들을 돌봐야하는 의사이지만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하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하시고 아빠도 잘 모르는 질병이어서 더 무섭다고 하셨다.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 2~3배 더 빨리 퍼지고 5~20배 더 치명적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나를 한 발짝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뉴스를 보니 대구의 도심은 텅텅 비어서 유명도시처럼 변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다. 아빠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왔는데 아빠는 열이 안 나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코로나

환자인줄 모르고 마스크를 끼고 그 환자 목을 봐줬는데, 그 환자가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병원 문을 닫고 자가격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통은 집에 와서 자가격리를 한다던데 아빠는 아무 증세는 없지만 혹시나 엄마랑 내가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아빠 병원에서 혼자 주무신다고 하셨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빠인데 아빠 얼굴을 직접 못 보고 2주 동안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영화같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일단 우리 집에 생긴 변화는 엄마는 평소에도 깔끔하셨지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온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꼼꼼히 자주 하신다. 심지어 내 공부방의 책꽂이에 꽂힌 책도 한 권 한 권 다 닦으신다. 엄마는 조금씩 자주 장을 봐오셔서 그때그때 신선한 음식들을 요리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셔서 많은 식료품들을 사오셨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고 택배로 받으셨다. 잠시 외출을 하고 집에 오시면 바로 욕실로 들어가셔서 씻고 나서서 나를 안아주신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유일하게 외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벌써 6개월이 넘도록 건강함이 느껴지게 하는 집밥만 먹고 있다. 그리고 여름이면 늘 외국에 열흘 정도 휴가를 갔었는데 외국은커녕 국내 어떤 곳도 못가고 ‘집순이’가 되었다. 학교는 3월 개학을 못하고 4월에서야 실시간 온라인수업이라는 방식으로 새로 바뀐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컴퓨터로 만났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던 학원들 모두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그 무엇보다 큰 변화는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면 ‘어디 아픈가?’ 하며 주의했지만,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매너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동네 빵집이나 마트를 가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팻말이 붙어있다.

사실 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사람에겐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회적 거기두기를 하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함께하지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접촉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우선 학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대면수업보다는 원격수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나의 경우엔 엄마와 아빠가 수업 후 그날그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은 좀처럼 집중을 못 하는 게 느껴졌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체험적이고 즐겁게 만들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게임화와 같은 핵심 기술을 이용한 원격수업이 생겨나 교육의 혁명을 가져올 것 같다.

또한 소위 ‘집순이’로 살 수 있도록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화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이미 활성화된 택배와 배송시스템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먹고 자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생활이나 집에서 놀고 즐기는 문화가 커질 것이다. 우리 아빠의 경우에는 퇴근 후에 일주일에 세 번 이용하시던 헬스장이 두 달간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열었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운동을 해야 하고 러닝머신도 붙여서 이용하는 것이 금지라고 해서 아빠는 헬스장을 가지 않고 집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신다. 우리 아빠처럼 나만의 공간에서 운동, 영화감상, 요리 등 취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과 만남이 줄었지만,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커질 것이다. 더불어 외숙모를 보니 LG 라는 대기업에 15년째 다니고 계시는데 코로나19 이후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서 컴퓨터로 근무를 하시는 날이 더 많다고 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피스 문화 역시 붕괴될 것이다. 굳이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은 만큼 근무환경 변화도 점차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에선 일부 섣다운이 진행되고 많은 기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이동을 줄이는 등 활동을 일시 멈췄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공기는 깨끗해지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탈리아의 운하가 많아졌다는 소식도 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 멈춤을 진행했지만, 그로 인해 지구촌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웃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를 떠나 교외에서 생활하는 문화도 자리 잡을 것이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밖을 다니지도 못하는 이 시기가 참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슬픔 속의 소소한 기쁨은 언제나 있기에 이 사태를 무작정 원망하고 우울해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 고마움을 느껴보려 노력했다. 하기 전까지는 막연히 두렵고 불편해 보였던 것이 해보고 나니 그 속에 있는 장점들도 보였다. 온라인수업으로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잘 수도 있었고, 등하교 시간이 없어서 생긴 여유시간에 원하는 책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었다. 비록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의 종식에 회의적이라고 할지라도 난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일상에도 언젠가 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 동상







## 외갓집 가는 길



박정연 | 대전 성룡초등학교 3학년

“정연아, 이번 명절에도 외할아버지 집에 가?” 나의 외갓집은 경상남도 창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창원까지는 약 230km,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거리로 아주 멀다. 친구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지겹지 않냐고 묻곤 한다. 물론 3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아빠가 운전하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 강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멋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가족을 맞아준다. 내가 태어난 봄은 겨울 동안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알록달록한 예쁜 새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다.

새 움이 트는 나무들 사이로 나비들도 따뜻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신나게 노는 듯하다. 산과 흙, 그리고 바람의 냄새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엄마 냄새처럼 향긋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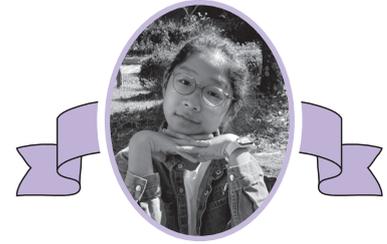
포근하다. 강물도 반짝반짝 은구슬처럼 빛이 난다. 잔잔한 물결을 보고 있으면 스르르 졸리기도 하다. 엄마가 태어나신 여름의 모습은 앞으로 보아도 초록, 옆으로 보아도 초록, 뒤로 보아도 초록, 나를 둘러싼 온 사방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다. 조금씩 다르게 칠해진 초록색 방에 들어온 듯하다. 밝은 초록, 진한 초록, 모두 아름다운 초록이다. 그래서일까? 엄마는 초록색깔이 제일 좋다고 하셨다. 햇별이 짹짹 내리쬐는 한여름의 햇별은 떼쟁이 동생에게 화가 난 내 마음처럼 열이 나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산처럼 뜨겁다. 하지만 초록색으로 뒤덮인 산과 나무들을 타고 온 초록바람이 뜨거운 열을 시원하게 식혀준다. 동생이 태어난 가을에는 잠자리 떼가 같이 가자며 우리를 졸졸 뒤따라오는 것 같다. 초록색이었던 나무들과 들판이 울긋불긋하게, 초록들판은 노란색 황금들녘으로 바뀐다. 가끔 들녘을 보면 밀짚모자를 쓰고 두 팔 벌려 새를 쫓는 허수아비와 농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평소에는 앉아 장난만 치던 동생도 “우와~” 하면서 보게 만드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빠가 태어나신 겨울에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산과 땅,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가끔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 아빠에게 “조금만 빨리 가요.” 라고 말하면 아빠는 웃으면서 “정연이 눈 구경 많이 하라고 천천히 가는 거야.” 라고 하시곤 한다. 너무 추워 따뜻한 털 잠바를 입고 가는데 신기하게 창원에 도착하면 털 잠바가 가끔 덥게 느껴질 때가 있다. 루돌프 사슴 코처럼 빨갳던 내 코와 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해진다. 하얀 눈이 산과 들을 이불처럼 잘 덮어주어서 따뜻해진 걸까? 엄마께서 가끔 “정연이가 엄마 뱃속 열 달 동안 있을 때, 창원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창원까지 기차 타고 다니면서 엄마가 창밖이 참 예쁘다고 정연이한테 얘기해주곤 했는데, 기억나?” 라며 웃으시며 이야기하신다. “엄마,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엄마는 나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신 것 같다. 그래서인지 가끔 산 중턱이 깎여 험벗고 있는 나무가 베인 듯한 모습을 볼 때면, 상처가 난 나의 피부를 보는 것처럼 아프고 따가운 느낌이 든다. 산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

자연이 엄마라면 우리는 아기인 것 같다. 자연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주어도 늘 우리를 품어주니까. 외갓집은 창월이라는 먼 도시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다. 대전에서 창월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이 나의 외갓집이다. 어릴 적 내가 외갓집을 오고 갈 때마다 보았던 산과 들, 땅, 물, 공기의 향긋한 향기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나의 아이에게 엄마의 외갓집 가는 길을 이야기해 줄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 내가 만드는 자연도시!



이제인 | 고양 흥도초등학교 4학년

내가 시장이나 군수라면 우리 동네를 이렇게 가꿀래요. 먼저 독일의 생태마을 ‘보봉’처럼 자연과 잘 어울리는 동네로 만들고 싶어요. 태양열을 주에너지로 사용하고 미래 에너지로 풍력을 사용한 에너지나 필요 없어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또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되도록 쓰지 않고 생긴 플라스틱은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할 거예요. 또 질병을 방어하는 방어막 시스템을 설치할 거예요.

방어막에는 문을 달고 세척할 수 있게 만들어 그 문에서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바이러스를 빨아들인 뒤에 그 문이 자동적으로 세척을 해서 바이러스를 철통방어할 것이예요.

마지막으로 휴양림을 동네 곳곳에 설치해 자연에서 쉬며 자연과 더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휴양림은 이래서 자연도시에 있기 좋지요! 제가 만들 도시를 자세히

소개하자면 농촌, 어촌, 산지촌을 테마로 한 마을, 여러 문화가 자연과 어울리는 마을로 나눠져요. 먼저, 공용으로 수확하는 장소를 만들어 일한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곳을 촌락들을 주제로 만드는 마을에 건설할 거예요. 그러면 직접 기를 채소를 가져가 즐거운 식사시간에 먹을 수 있지요! 또 다른 도시와 색다르게 촌락체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지요.

여러 동식물을 주제로 정해 테마파크처럼 꾸밀 거예요. 도시 속에서 스탬프 모으기, 놀이기구 타기, 사진코스 등으로 놀 거리를 꾸미고 벽화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 특산물, 동물 등으로 꾸밀 거예요. 다음으로, 문화와 자연이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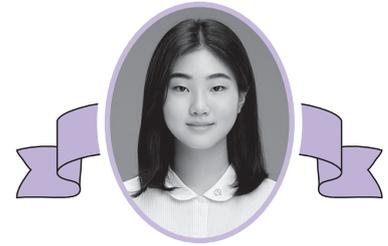
그러면 여러 문화를 자연과 즐기니 색달라서 놀랍고 신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의 ‘탱고’를 비발디의 사계 중 ‘봄’에 맞추어 추든지 이탈리아의 카니발을 숲 같은 곳에서 개최해 보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자연과 하나 되면 다른 느낌으로 재발견돼서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자연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만드는 자연도시의 수입이 늘어나 저희 마을의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색다르게 변신한 문화들을 보고 큰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우리 마을이 이익을 얻으며, 자연 사랑을 느끼고 문화를 재탄생시켜 널리 퍼트릴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해 여러 일을 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마을들을 통틀어 그곳의 특색을 살린 박물관, 기념가게 등을 많이 만들 거예요. 박물관에는 마을의 동물들, 곤충들, 자연모형 등을 전시해서 그곳의 느낌을 살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을 더 잘 알게 되어 뿌듯함과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들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말한 태양열, 풍력 에너지, 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역축제 열기와 자연에서 얻는 자원을 이용한 가구 박람회를 개최할 겁니다.

지역축제에서 그곳의 특산물을 팔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을 열 것인데요. 농촌이 주제마을인 곳에서는 농산물 수확하기, 농기구 타보기 등이 있고, 어촌이 주제마을인 곳에는 갯벌에서 조개 캐기, 물고기 잡기 등이 있고, 산지촌이 주제마을인 곳에서는 치즈 만들기, 양봉업 체험 등이 있어요. 문화마을은 지역축제에서 공연보기, 문화체험, 공연하기 등을 자연과 같이 체험할 거예요. 가구박람회는 자연에서 얻는 자원을 이용한 가구로 열 것인데요. 이 박람회에서 가구를 사서 집에 배치해 놓으면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나서 좋은 기분이 들어요. 이처럼 저는 모든 자연환경, 동식물, 사람이 어울리는 촌락 같은 느낌도 나는 자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약 이런 도시를 만들면 많이 와주세요!



## 사소한 것



송예진 |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후 우리의 국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연환경은 놀라울 만큼 호전되었다. 하늘을 뒤덮던 미세먼지대신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이 자리 잡았고,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동물과 생명체까지도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장시간의 활동 중단으로 이렇게 나아짐에 경악하기도 하고 지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자연보호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후원을 하고 봉사를 하러 다니는 것 외에도 재활용 분류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대중교통 이용은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나는 요즈음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푸른 하늘과 함께 좋아지는 기분, 맑은 공기와 함께 개운해지는 나날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아마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이어나가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다. 며칠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에는 아주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도 아이와 함께 쓰레기를 줍고 계셨다. 나는 항상 ‘아, 나도 쓰레기를 주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는데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것을 사소하다고 넘기기에 그의 용기가 너무나 예뻐다. 그 용기가 하늘을 덮어도 좋다고 생각될 만큼,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니까. 모두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이 상황을 좋아하는 나와 다르게 이 상황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답답한 마스크와 마스크를 써도 제한되는 범위, 짜증날 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마스크를 안 쓰며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겁먹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미 전염병이라는 것에 여러 번 노출되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한 번 더, 또 다시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당장에 사람들만 봐도 영화나 드라마 장면 중 버스나 지하철 속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끝날지 예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일의 근원은 사소한 것이다. 나는 이 사회가 모순적이라 생각한다. 항상 자연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에어컨과 자동차에 들 비용만 생각하여 방치하다가도 이렇게 찰나에 보인 희망만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자부심을 부추긴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다. 항상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저 내가 안타까워하는 축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날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려 한다.



## 연어야 안녕!



이다솜 | 울산 문현초등학교 2학년

저는 연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붉은 색의 연어 살은 아주 먹음직스럽고 향긋해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주 연어를 사다가 요리를 해주십니다. 제가 사는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태화강을 걷고 있는데 물고기가 막 튀어 오르면 이곳저곳에서 물고기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고기 좀 보세요.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저 물고기가 다솜이가 좋아하는 연어란다.” “정말요?” 저는 연어가 우리 가까이에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는 울산이 산업도시라 이 태화강도 오염이 엄청 심해서 죽은 강이었다고 했습니다. 태화강은 울산 중심에서 흐르고 있는 강인데 물도 검은색, 악취도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환경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을 정수하고 쓰레기를 줍고 무엇보다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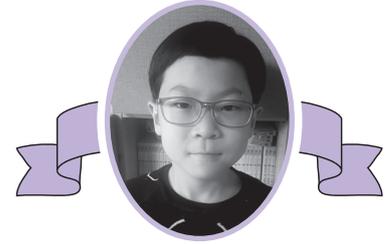
시설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태화강이 점점 깨끗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이 깨끗하니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무엇보다 재첩이라는 조그마한 민물조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어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울산은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연어, 치어를 놓아주기 캠페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연어는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와 준다는 것을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다시 강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맘때가 되면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태화강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어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어를 못 먹겠네요? 너무 불쌍해요, 힘들게 왔는데.” “하하하하, 우리가 먹는 연어는 저 멀리 바다에서 잡아오는 거라 괜찮아.” “정말요?” 전 연어가 고맙기도 하고 깨끗해진 태화강에게도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울산에는 태화강도 바다도 다 있단다. 함께 있기에 강도 바다도 우리의 국토란다. 우리가 사는 그 국토를 우리가 보호하고 잘 가꾸어 우리가 지켜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토사랑 글짓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우리의 국토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이 생태도시 울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국토이기 때문 아닐까요? 전 생태도시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



양서준 | 안양 귀인초등학교 2학년

우리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땅, 독도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반은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해서 나는 참 좋다. 선생님께서는 독도를 지키려면 독도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며 수업 시간에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독도 부채 만들기, 독도 탈 만들기, 독도 입체모형 만들기, 찰흙으로 감치 만들기, 독도 퀴즈, 독도 노래 부르기 등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다.

그중에서도 나는 독도 지킴이 왕이 돼서 받은 독도 보드게임을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했던 것이 가장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공부를 재밌게 하니까 독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더 잘 됐다. 그래서 나는 덕분에 독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독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멋진

어린이가 될 것 같아 뿌듯했다. 2학년 첫 시간부터 아주 특별했다. 학교에서 우리 반은 독도 지킴이 발대식을 했다. 나는 독도 티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내가 만든 태극기를 흔들면서 멋진 포즈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무척 신났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하리라 다짐했다. 우리 반이 특별해서 너무 좋았다. 나는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져서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천안에 있는 ‘가고 싶은 섬, 독도’라는 독도전시관에 갔다. 책에서만 보던 독도에 대해서 직접 전시관에 가서 보니까 더 실감나고 좋았다. 독도의 역사와 독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실제 역사책들을 보고 동영상도 보니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뿌듯했다. 그리고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또, 독도를 지켜던 안용복과 독도수비대를 보면서 나도 꼭 아름다운 독도를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독도한테 함부로 하고 나쁘게 한 일들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나고 답답했다.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독도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다. 다음에는 꼭 독도에 가보고 싶다. 독도를 눈앞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할지 상상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된다. 독도전시관도 둘러보고, 독도 사랑, 독도 지킴이 동아리를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해 관심과 사랑이 커졌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독도가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독도경비대원들께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든다. 지금까지 독도를 아껴주고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 독도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건 다 독도경비대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독도대원들이 든든하게 독도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독도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아무리 우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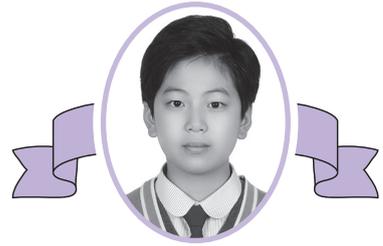
독도를 넘보아도 독도경비대원들이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있어서 절대 넘볼 수 없다.

나도 훌륭한 독도 지킴이가 되어서 독도를 지켜줄 것이다. 조금 있으면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땅임을 널리 알리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독도의 날뿐만 아니라 항상 멋진 독도 지킴이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땅, 독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지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동안 독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고 나라 사랑하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 땅, 독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땅을 지키고,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들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실천하고 싶다. 우리 반의 특별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독도의 많은 지식과 소중함을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미래에 일본 친구들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바르게 제대로 알려줄 것이다.



## 나의 비밀의 정원 '도동서원'



이주오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올해 우리 가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10곳을 가보기로 계획을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여행이 힘들어져 조금 주춤해진 가을부터 전국 서원을 돌아다니기로 했다.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을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자주 놀러가던 도동서원이 작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다른 서원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도동서원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달성군은 우리 아빠의 고향이라 걸음마 할 때부터 공원처럼 쉬다오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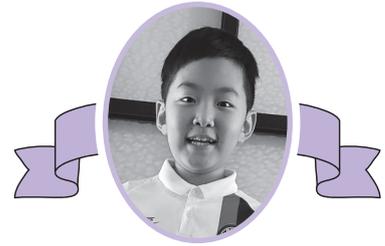
그곳에 가면 입구에 너무 커서 안을 수도 없는 은행나무 한그루가 있다. 어릴 적에는 그 나무에 매달려보기도 하고 은행나무 옆에서 숨바꼭질도 하면서 막 뛰어 놀았다. 지금 처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둥이 없을 때에는 나무가 놀이터였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은행나무는 40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나무 중에서

도 진정한 할아버지 나무였던 것이다.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기울어져 기둥으로 받쳐진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다. 나무를 지나 입구를 올라가면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수월루’라는 문이 나온다. 이 문을 지나서 환주문을 지나면 커다란 중정당이 나온다. 중정당은 옛날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인데 여기 툇마루에 앉아 멀리 앞을 보면 낙동강이 흐르고 그 뒤로 산이 둘러 쌓여있다. 이 풍경을 보면서 아빠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낙동강이 흐르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이번에 국토사랑 글짓기를 쓰면서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의 정원 같은 이곳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알던 이 비밀의 장소가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다. 우리 아빠가 놀이터처럼 나를 데리고 가준 것처럼 나도 그러고 싶다.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도동서원은 가을이 더 깊어질 때쯤 은행나무 잎들로 더 노랗게 물들 것이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멋진 풍경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좋은 서원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서원여행은 엄마의 고향인 영주 ‘소수서원’으로 가보기로 했다. 서원은 모두 경치가 뛰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아 나도 멋진 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비밀의 정원 ‘도동서원’을 소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채준우 | 부천 상인초등학교 3학년

“우와! 멋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만나러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가슴 벅찼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넓게 펼쳐진 성곽을 따라 걷다보면 정조대왕의 깊은 마음이 전해져온다. 벽에 기대어 그 마음을 오래 남기고 싶어 ‘정조대왕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시를 쓴 기억이 있다. 이렇게 여러 곳을 여행 다녀 보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산이 많고 평야도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마다 특색 있고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책에서 알게 된 태안반도, 우리 바다의 큰 아픔이 눈에 들어오게 됐다. 2007년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원유를 가득 실어가고 있던 유조선이 충돌한 것이었다.

이 일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을 아프게 했다. 많은 연구원들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도 몇 십 년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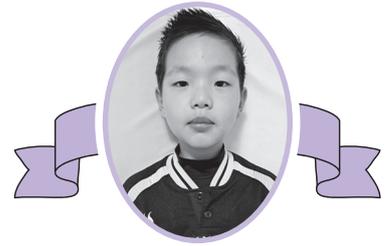
달렸다. 이것은 태안의 기적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불과 10년 만에 태안의 오염됐던 바다가 다시 생물과 동물들이 숨 쉴 수 있는 바다가 되었다. 이 태안반도의 바다가 유난히 더 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얼마 전에 갯벌에 놀러갔을 때 ‘오염된 바다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조개 껍데기에서 기름유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전 세계 친구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지역이 있다. 그곳은 바로 강릉이다. 강릉을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오른다. 우선 강릉의 가장 유명한 바다 ‘경포대’의 맑은 물, 소나무 숲 모두가 다른 바다보다 장관인 것 같다. 파란 바다와 초록 숲을 보고 있으면 눈이 저절로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강릉의 자랑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 중기의 목조 건물이다. 이 예쁜 바다와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어우러져 강릉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강원도는 유난히 산이 많은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운 산이 많은 태백은 내 아빠의 고향이기도 하다. 태백에는 높지만 아주 예쁜 산이 자랑거리이다. 특히 겨울이 되면 산에 눈이 소복이 쌓여 눈꽃이 핀 듯 아름다운 모습을 뽐낸다.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 몰랐던 곳을,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하며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외국여행만 즐겁다, 멋지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국내여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나의 꿈은 작가인데 나중에 작가가 되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여행지를 떠올리며 우리나라 국토를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차근차근 공부해나갈 것이다.

나! 채준우가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



## 아빠의 고향은 남해 상주리입니다.



류재진 | 창원 사파초등학교 4학년

저희 아빠의 고향은 우리나라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남해 상주리입니다. 아빠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증조할머니 손에 맡겨지면서 갯난쟁이부터 남해 ‘상주리’에서 자랐습니다.

아빠가 대학을 진학하여 남해를 떠나 창원에 정착하였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는 창원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창원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빠가 남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회사일이 힘들거나 얼큰하게 약주를 하시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 속 배경은 늘 ‘남해 상주리’가 되지요. 아빠의 어린 시절은 때로는 힘든 몸의 쉼터가 되고 때로는 쓴 술의 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증조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남해를 자주 갔지만 돌아가신 후로는 일 년에 3번 정도 갑니다. 오늘은 추석 전 별초를 하기 위해 남해에 가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엄마는 채비를 하시느라 바쁘시지만 아빠의 얼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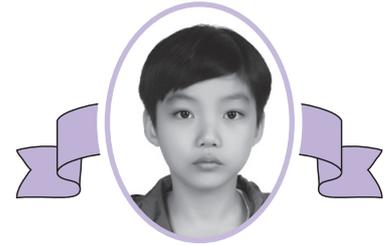
주름이 조금 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마치 내가 소풍가는 날처럼 들뜬 모습입니다. 남해로 향하는 차 안의 시간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처럼 지루합니다. 남해에 다다를 때쯤이면 아빠는 자동차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여십니다. “애들아~ 공기가 다르지?” “음~ 바다냄새~” 동생과 나는 코를 벌름거리며 시늉을 하며 차창 너머로 손을 살짝 내밀어 바람을 쓸어봅니다. 소금을 잔뜩 머금은 바다 향기와 손끝을 쓰다듬는 보드라운 바람, 드넓은 하늘과 고운 푸른빛 바다가 친구가 되어 파란 세상을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해 상주 바닷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잦지 않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며, 반짝이는 모래빛으로 우리를 반깁니다. 나는 저 멀리 흘러가는 파도 속에 코로나19가 쓸려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생과 나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고운 모래 속에 손과 발을 맡겼습니다. 마치 모래가 간질이는 것 같아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커다란 돌 틈 사이로 이리저리 헤엄치는 새끼물고기와 숨바꼭질하듯 재빨리 몸을 숨기는 아기 게들, 다닥다닥 바위에 붙어 슬금슬금 엄마를 찾는 소라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 꼬마의 신나는 웃음소리까지 온라인 수업 같았던 차 안 시간들은 금세 까맣게 잊었습니다. 남해가 왜 보물섬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자 우리 가족은 해변 캠핑장에 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 것입니다. 텐트 속에서 본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불꽃놀이를 하듯 반짝였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코를 골며 잠이 드셨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게만 들리던 아빠의 코골이가 철썩이는 파도에 묻혀 저 멀리 흘러갑니다. 나는 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빠의 고향 남해 상주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고향은 남해 상주리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 기억이 공존하는 산곡 1동



이종수 | 인천 부마초등학교 6학년

“종수야, 오늘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지금보다 코로나19가 덜 심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동네에 있는 맛집에 간 다음 엄마가 하신 말씀이다. 오랫동안 외출을 안 해서 답답해하던 우리들은 엄마 말씀대로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예전 외할아버지의 가게였다. 지금은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서 가게는 폐업한 상태지만, 내가 산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녔을 때 하원하고 외할아버지의 가게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 할아버지 가게 앞의 방앗간은 아직도 운영 중인데, 방앗간 사장님과 외할아버지께서 친하셔서 방앗간에 가서 음식도 먹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친할머니도 고춧가루가 필요하실 땐 이 방앗간에 가시는데, 한 방앗간에 외할아버지랑 친할머니가 모두 다니셨다니 참 재밌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시장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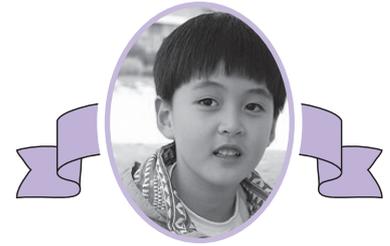
재개발 예정으로 인해 운영되는 가게들이 거의 없었고, 좋지 않은 냄새도 났다. 예전

에는 산곡동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시장이었다는데, 천장에 찢어진 비닐이나 떨어져 있는 간판을 보니 상상이 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나와 오른쪽을 보자 가림벽이 세워진 건물이 보였다. 건물 벽면에 무섭게 생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엄마한테 여쭙보았더니 예전에는 슈퍼마켓이었고, 그 이전에는 극장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예전에는 극장 상영작 포스터를 직접 그렸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무섭게 느껴지던 그림이 웃기게 보였고,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것 같았다. 전에 우물이 있었다는 화단을 지나 문방구점에도 갔다. 그 문방구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도 초등학교(엄마도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에 다니실 때 이 문방구점을 다니셨다고 하셨다. 아직도 운영 중이라 기념품도 살 겸 들어 갔는데 가게 주인아저씨가 안 바뀌셔서 반가웠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물건들도 있어서 너무 신기했다. 엄마도 재미있으셨는지 그런 물건들을 엄청 사셨다.

엄마는 여러 가지 기억이 나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도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재미있었다. 동시에 이곳이 개발 예정이라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슬프기도 했다. 워낙 넓은 집들이 많아 개발되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추억을 그냥 없애 버리고 잊게 되는 건 아쉬웠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추억이 담긴 곳은 그냥 재개발하기보다 보존을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골목 일부, 가게 일부를 보존하고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남겨서 여러 세대들이 기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가 엄마의 기억을 들으며 재밌어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나의 기억을 들으며 재밌어하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좋겠다.



## 내가 꿈꾸는 마을



권지환 | 제천 홍광초등학교 2학년

이번 여름에는 49일, 제일 긴 장마라 비 피해가 컸다. 내가 살고 있는 제천 근처에도 비 피해가 엄청 컸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삼탄역이 잠긴 것이다. 아빠가 청주에 계셔서 기차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가야하는데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다. 비 피해를 당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뉴스를 보고 갑자기 아파트도 겁이 났다. 건물도 아파트도 불안하면 앞으로 나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할까? 나는 깃발을 너무 좋아한다. 여러 개의 태극기, 새마을기, 경찰청기, UN기를 모두 달 수 있는 9층짜리 내 건물을 짓고 싶었다. 이번 코로나19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고 깃발을 달고 살려면 주택이 필요할 것 같다.

처음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아파트 주위에 아무 것도 없어서 여유로운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한 마을이 되었다. 길에 주차도 많이 되어있어서 아빠가 주말에 집에 들어오실 때면 가끔 짜증을 내시기도 한다. 왜 발전한 곳만 계속 발전을 하고 조용한 곳은 계속 조용하기만 할까?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엄마가 말씀해 주셨다.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봉화 할머니 덕에 가다 보면 넓은 땅도 엄청 많은데 왜 복잡한 곳만 복잡한 걸까? 나는 복잡하지 않고 한가한 곳에 작고 예쁜 집을 띄엄띄엄 지어서 코로나19도 겁내지 않고, 층간소음에도 힘들어 하지 않는 그런 집과 예쁜 마을을 만들고 싶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산책도 못하시고 복지관에도 못가시고 늘 집에 계신다. 내 친구들도 놀이터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좁은 우리나라 땅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집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고 작고 아담하며 마당이 있어서 코로나19처럼 위험한 바이러스가 다시 생겨도 안전한 내 마당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 주위에 있는 낡고 허름한 집을 튼튼하게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은 떨어져서 살게 되어 지금보다는 덜 복잡할 것 같다. 아담하고 예쁜 집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자리 잡고, 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유가 있는 예쁜 마을로 만들고 싶다.



## 개발! 생태계의 악마



도예원 | 부천 상인초등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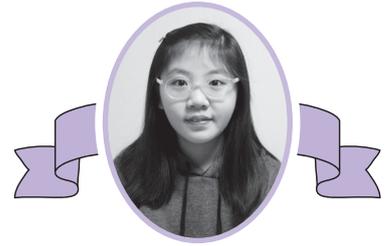
산을 깎고 깎고 깎고 도로가 완성된다. 부릉부릉 바퀴가 돈다. 차가 뽕뽕 소리를 낸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그곳에 갔다. 헉, 왜 도로가 있지? 아름다운 동물의 집, 산이 어디 있지? 어제 책에서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말. ‘아! 사실이었어!’ 솔직히 그 책을 보고 난 뒤 이해가 안 됐다. 개발은 좋은 것 아닌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근데 난 지금 느꼈다. 왜 그땐 동물을 생각 못 했지? 사람들만 생각했지? 지금 보금자리를 잃은 동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산에 사는 동물을 생각하니 고민이 많았다.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개발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종이에 썼다. 개발로 좋은 것, 첫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로 나빠진다는 것은 첫째,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나쁜 먼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둘째, 동물이 살 곳이 없다. 셋째, 산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는데 자연환경이 보

존이 안 돼 자연이 언제 없어질 수도 있다.

조금만 생각했는데 개발에 좋은 것은 두 개, 나쁜 것은 세 개! 안 되겠어!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것만 개발하라고 알려줘야겠어. 저녁을 먹으며 나는 가족과 함께 의논했다. 가족들은 내가 기특하다고 했다. 물론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다. 그 결심을 한 후로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생태계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제발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태계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을 것이다. 잠들기 전 너무 설렌다. 과연 내가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눈을 감았는데 벽찬 가슴으로 자꾸만 내 머릿속 자연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 평화를 사랑한 가야인의 고장, 김해!



정한울 | 김해 울산초등학교 5학년

“우와~ 멋지다! 아빠, 저 들판 끝에 바다가 보여요!” 내 두발 아래 네모반듯한 황금빛 들판이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었다. 분산성에서 내려다본 김해 시가지는 파란 하늘과 익어가는 황금빛 벼이삭이 어우러져 그림처럼 보였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곳 김해로 이사 오기 전까지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아빠의 발령으로 갑자기 이사 오게 되면서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시골로 이사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렇게 이사진 김해는 좀처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고대시대 ‘가야’라는 나라가 이곳 김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께서 주말에 근처 역사유적지 탐방을 하자고 하셔서 따라 나섰다. 그렇게 시작한 김해의 시간여행지가 벌써 10곳을 넘기며, 나는 이 고장에 푹 빠지게 되었다.

가야의 땅 김해는 낙동강을 끼고 서쪽에 위치해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해 예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다양성이 존재했던 평화의 나라 가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아빠, 수로왕과 부인 허황옥이 다문화 가족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질문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를 돌아보고 김해국립박물관까지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가야의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든다. 살아있는 생태계의 박물관 화포천 생태습지공원과 고분박물관까지 가야의 도시 김해는 볼거리로 가득하다. 특히 분청도자 박물관과 바로 옆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보면 과거와 현대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에너지를 내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수로왕이 세운 가야는 함께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을 사랑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폴리스처럼 여러 가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 그 옛날 삼국시대 세 나라는 서로 뺏기 위해 싸웠지만 가야는 함께하는 공존을 추구했다고 한다. 나는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좋았다. 작은 가야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힘을 합쳐 뭉쳤고 철을 다루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우륵의 가야금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고 한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가야의 토기는 다양성을 보여준다. 여섯 연맹의 개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분산성에서 바라본 김해시가지는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의 도시 속에 오늘날의 시간이 옹기종기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었다. 내가 바라본 김해의 현재 모습이 어찌면 수로왕이 원했던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520년간 가야인들이 이곳 김해에서 평화의 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는 지하철이 없어도 괜찮다. 한적하게 오래전 가야인들을 만나는 지금의 시간이 즐겁고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이제는 좋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 곳도 버릴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화를 사랑한 가야인들의 고장 김해가 지금보다 더 멋진 역사도시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고장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20년 후 나의 하루



주이솔 | 부산 화정초등학교 1학년

나는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았다. 뉴스에서 주이현 농부가 화성에서 처음 감자를 수확했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기뻐서 눈물이 나왔다. ‘우리 이현이가 해냈구나!’ 나는 해낼 거라고 동생을 믿고 있었다. 화성에서 물이 발견된 이후 첫 농작물을 수확한 것이다. 화성에 가서 농사일을 시작한 이현이를 못 본 지 오래되어 정말 그립다. 나는 드론 택시를 불러놓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드론 택시가 베란다 앞 주차구역에서 도착을 알렸다. 나는 100층에 산다. 드론 택시를 탈 때마다 아찔하다. 택시를 타고 내 연구실로 왔다. 나는 새로운 공룡 이솔사우르스 뺏조각을 연구하고 있다. 내가 발견한 이솔사우르스는 육식 공룡이다. 내 이름을 붙여서 공룡의 이름을 지었다. 영광스럽다. 곧 사람들 앞에 이솔사우르스의 뼈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몰두해서 연구했다. 점심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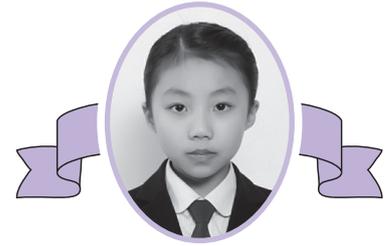
되었다. 바다 정거장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는 바다 기차 운전사이다. 바다 기차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그 사실이 나는 늘 놀랍다. 친구가 운전하는 바다 기차가 정거장에 정차했다. “이술아! 왔니?” “네가 좋아하는 산호식당에 갈까?” 했다. 우리는 산호동에 내렸다. 산호동은 바다 마을이다. 이곳에 사람들은 아름다운 바다 생명체와 더불어 산다. 바다는 자원도 많고 식량도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개발을 앞다투어 하고 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는 산호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산호식당은 거북이랑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다.

“이런 점심은 우리 어릴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내가 말했다. “오늘 유치원생들이 전학을 왔어. 내일은 또 학교에서 소풍을 온다는군!” “여긴 아이들한테 핫플레이스구나!” “하하하!” 우린 함께 웃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는 정거장으로 나와 바다 기차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나의 엄마가 시간을 맞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의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차를 세웠다. 나는 트렁크에 있는 물통을 꺼내서 연료통에 물을 채웠다. 엄마의 물자동차는 느리지만 환경오염을 안 일으키고 연료를 구하기도 쉽다. “술이야, 오늘 우리 단체에서 나무를 만 그루나 심고 왔어! 그 전에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오늘은 심는다고 허리가 아프지만 끝내고 나니 정말 뿌듯하구나.” 먼지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엄마가 정말 멋있어 보였다. “훌륭해요! 나는 항상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 휴가는 화성으로 가요. 오늘 뉴스에서 동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이 더욱 그리워요.”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오전에 이현이와 영상 통화했어. 이현이가 감자를

보여줬어.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났어.” 엄마는 또 눈물이 나왔다. “이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와 대화하면서 가는 길이 즐겁다.



## 2040년 우리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이도연 |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2040년 9월 20일, 오전 7시 30분. 밤처럼 캄캄했던 내 방에 조금씩 햇살이 들어온다. 아침을 열어주는 전동커튼 소리와 20년 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자 빌보드차트 1위로 세계를 열광시켰던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나를 깨워주는 알람 소리이다. 침대 옆에서 ‘또또’가 웃으며 아침인사를 해준다. 쿠키는 벌써 20살이 훨씬 넘은 할머니 강아지이다. 10년 전의 의술이라면 벌써 하늘의 별이 되었겠지만 10년 동안 엄청난 의술 발달로 강아지의 수명도 사람만큼 길어졌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멍멍’ 소리만으로도 쿠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작은 모니터가 가슴에 부착되어 있다. 어릴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쿠키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또또’가 미리 준비해놓은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듣는다. ‘또또’는 나의 친구이자, 비서이자, 가사 도우미이다. 또 다른 ‘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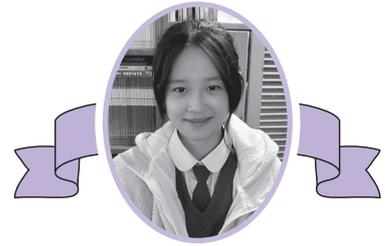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많이 도와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면 나의 자동차 봉봉이가 시동이 걸린 채 서있다.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내가 의자에 앉으면 내 몸에 가장 편하게 세팅이 되며 안전벨트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서서히 출발한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다. 이 차는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누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시간에 모자란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교통체증이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쏟아지는 실시간 교통정보들로 교통혼잡은 없다. 그래서 공기 오염물질들의 농도가 0에 가깝다. 그리고 심각한 미세먼지들로 마스크와 방독면에 의존하던 그때를 ‘라떼는 말이야’ 라며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은 아주 파랗고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다. 과학의 발달로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잡아주는 훌륭한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우리의 폐 건강 위협을 받던 위기의 순간을 멋지게 극복한 것이다. 내가 상상해본 20년 후의 아침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이라기보다 곧 일어날 우리의 미래이다. 이미 과학 발달로 인해 이 모습들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몇 년 전에 자율주행 차량의 실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서 보았다. 그리고 벌써 반자율주행 차량들은 우리의 도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집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 아빠가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직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로봇의 발달도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요즘 드라마의 소재로 인공지능로봇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엄마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주인공 로봇들은 하나같이 외모면 외모, 지능이면 지능, 체력이면 체력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로봇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 주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 로봇이지만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다. 정말 그런 로봇이 있다면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들을 보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인공지능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 ‘스마트시티’의 세상이 열린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아주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된다.



## 내가 만약 대구시장이라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래요



손채원 |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2020년, 지금의 내가 사는 도시는 온통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와 길에 버려진 개, 고양이들, 그리고 설자리를 잃고 소외되어가는 노인들, 거기에 올 한 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사태까지! 원래도 인간의 정이 사라지고 경쟁만이 몰아치던 회색 도시였는데 코로나는 이 도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마을은 원래 길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안 되고 개, 고양이들이 길가에 버려져 있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정답게 인사하고 봄에는 꽃향기를 맡고, 여름의 폭염에는 큰 나무 그늘에서 쉬고,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방 안에 모여 군고구마와 꿀을 나눠 먹으며 그날의 있었던 일을 가족끼리 나누는 풍경들이 마을을 꽉 채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우선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는 직업을 잃은 노인

들에게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줍기 일자리’를 줘서 노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해결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청결한 마을, 깨끗한 공원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각 동네마다 모든 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하고 급식소를 설치해서 캣맘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게 하겠다. 그러면 밤중에 고양이 소음도 없어지고 쥐로 인한 전염병 걱정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 문제는 북유럽의 방식을 따라 하여 먹이에 불임약을 섞어주고 알을 가짜 알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해결해야지 무작정 굶기거나 죽이거나 혐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더, 각 동네마다 있는 유기견 보호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치나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버리면 큰 벌금을 물게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문제되고 있는 각종 희귀 야생동물 카페를 없앨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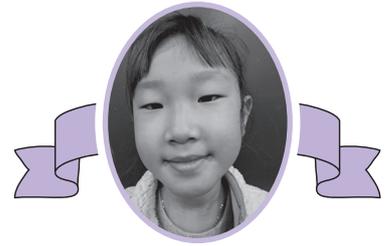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보다 동네 곳곳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주변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건물들이나 폐업가게, 혹은 쓰이지 않는 땅을 모아 수목원과 공원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 도시가 시골이 될 순 없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살면서 초록색을 많이 보고 살게끔 만들고 싶다. 내가 사는 도시는 특히 산이 많은데 더 이상 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자치령을 만들 것이다. 어른들의 골프 같은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한국같이 땅이 매우 좁은 나라에서 골프 등의 이유로 국토를 계속 훼손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 내가 시장이 된다면 만들어 나갈 도시의 모습을 글로 써보았다. 내 글의 핵심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다.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런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만이 미래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 행복이 가득찬 '봉산 통새미'



성지민 | 창원 자여초등학교 2학년

“지민아, 지원아, 외할머니 댁 가자.”

“네, 준비할게요.” 우리 외할머니 댁은 나만의 지름길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같은 동네다. 나와 동생도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엄마도 여기 자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여 토박이시다. 그래서 나는 엄마 덕분에 친구들이 모르는 길도 몇 가지 알고 있다. 외할머니 댁 가는 골목길에는 볼거리가 많다. 비오는 날 풍경이 그려진 벽화도 있고, 딱 봐도 백 살은 넘어 보이는 당산나무도 있다. 그중에 최고는 저 수상한 돌덩이다. 분명히 여긴 수라할머니네 경운기 주차장인데 저게 왜 있지? 오늘은 엄마에게 꼭 물어봐야겠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돌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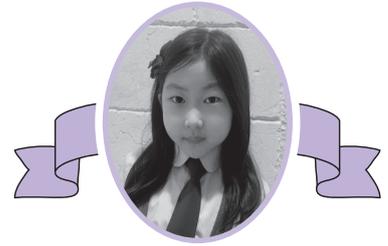
“어떤 거? 저기 있는 비석?” “비석이요? 그게 뭐예요?” “비석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없어진 자리를 표시해놓기 위해 세워둔 이름표 같은 거란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돌에 날짜와 글씨가 새겨져 있다. ‘통샘터’, 갑자기 나의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엄마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시더니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부터 이 자리에는 마을 뒤 정병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만든 아주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네모 모양에 어른 10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깊이는 손을 위로 쪽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아주 깊고 크다. 이름은 ‘봉산 통새미’이다. 우물은 항상 넘쳐 흘렀고, 깨끗하고 시원해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누구나 와서 한 모금씩 마셨단다. 그리고 마을 잔치가 있는 날에는 이 물로 밥도 짓고 국과 반찬도 만들어 모두가 푸짐하게 드셨다고 한다. 또, 우물 대청소 날이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청소도 하셨단다. 엄마의 어릴 적 통새미는 친구들과 술래잡기, 비석치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던 놀이터도 돼주었다.

나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았다. 통새미에서 졸졸 흐르는 물도 마셔보고, 친구들과 줄넘기 공기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내 모습. 눈을 살포시 뜨니 흐뭇한 미소가 난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분명히 여기는 행복한 일만 가득한 행복 통새미였을 것이다. 나는 우리 마을이 참 좋다. 작은 마을이지만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다. “친구들아~ 나랑 같이 봉산 통새미에 놀러가자!”



##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우리 국토



김민송 |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토사랑 글짓기대회가 있다 하셔서 국토TV를 보게 되었다. 하늘에서 본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했다. 무슨 모양일까? 어떤 색깔이 제일 많을까? 무슨 종류의 나무가 많이 보일까? 보기 전에는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다. 하늘에서 본 우리 국토는 아름다울 것 같다. 처음 본 거재 장승포항은 물결과 배들이 잘 어우러져 있었다. 마치 배들이 폭풍을 맞이하지 않고 장사도 잘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힐 것 같았다. 두 번째로 본 제주 비밀의 화원은 진짜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다.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연 중에서 일등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 비밀의 화원에 장미를 가득 심고 싶다. 왜냐하면 장미는 향이 되게 좋아서이기 때문이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세 번째로 본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은 녹차밭이 돋보였다. 녹차밭이 기사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두색깔 중에는 하얀색으로 착각할만한 색도 있고, 청록색으로 착각할 색도 있었다. 푸른 밭들이 수없이 깔려져 한 줄로 나란히 서있는 듯 푸르고 예뻐다. 네 번째로 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해안은 자연과 함께 놀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에메랄드색 바다와 하트 모양이 엄청 특이하고 예뻐다. 건물 옥상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피크닉도 안 가도 되고 돌고래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섯 번째로 본 대전 월드컵경기장은 웅장하고 화려해서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얀색 월드컵경기장 외관이 주변과 어우러져 있고, 안의 파란색 의자와 하얀 건물이 잘 어울린다. 여섯 번째로 본 서울 양화대교는 진짜 서울 느낌이 들었다. 도로와 차들이 활기찬 느낌이고, 자연이 뿔내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잘될 것 같다! 전봇대도 한 줄로 잘 정돈돼 있었다. 일곱 번째로 본 서울 여의도는 건물과 강, 다리, 기차 등이 자연과 하나인 것 같았다. 웅장한 빌딩이 자연과 합쳐진 느낌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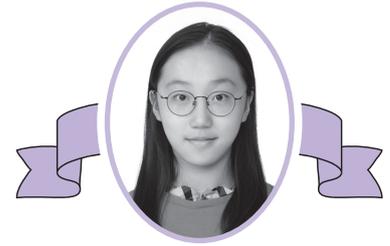
하지만 거기에는 도로 중간중간에 쓰레기봉투가 보였고, 물은 조금 더러워 보여서 마음에는 안 들었다. 여덟 번째로 본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주변 건물은 낮지만 활기차고 시골스럽지만 정겨워 보였다. 건물들 사이로 나무가 엄청 많아서 예뻐다. 하늘색이 오로라색을 닮았다. 너무 멋진 하늘이었다. 꼭 가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분당 율동공원은 이름처럼 율동도 하고 운동도 잘될 것 같았다. 물도 맑아 보였고 쓰레기도 없었다.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고 예쁘게 나올 것 같다! 거기서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나중에 애완동물이 생기면 거기 같이 가서 놀고 싶다. 그리고 차들도 많이 오가서 인기가 정말 좋을 것만 같다.

율동공원은 정말 멋지다! 하늘에서 본 국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곳은 제주 비밀의

화원이다. 나라면 거기에 꽃을 더 많이 심었을 것이다. 꽃밭으로 만들고 싶다. 부모님과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을 갔을 때와 하늘에서 본 느낌은 달랐다. 하늘에서 본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병사들이 줄을 지어 가는 정돈된 느낌이었다. 초록색이 많아서 거기 가면 눈이 맑아질 것 같다. 보기 전에는 나무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무가 생각보다 많았다. 나무 모양은 조금 더 예뻐지면 좋겠다. 나라면 나무를 고양이 모양으로 깎았을 것이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거기에서 책도 읽고 책벗 쉼터가 될 수 있다. 고양이 모양뿐만 아니라 하트 모양, 곰돌이 모양, 꽃 모양도 깎을 것이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넓힐 것이다. 왜냐하면 차들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도로를 더 넓히고 싶다. 그리고 식물도 많이 심을 것이다.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나무놀이터를 만들 것이다. 나는 자연을 이용해서 도시를 만들 것이다. 특히 책벗 쉼터와 나무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자연은 정말 소중한 것 같다. 앞으로는 풀과 꽃을 꺾지 않을 것이다.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더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위해!



## 가치 있고 같이 있는 우리 국토



이송윤 | 부천 상일초등학교 5학년

“이송윤님,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여름휴가를 가는 날입니다.” AI 비서인 빅토리아가 나를 깨웠다. 지금은 2040년, 나는 32살이다. “그래, 그래. 일어났어. 으하아암.” 내가 빅토리아를 멈췄다. 나는 여름휴가를 맞아 오늘, 즉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 집까지 여행을 하기로 했다. 요즘은 집집마다 AI 비서가 있어서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다. “빅토리아 아무래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어야겠지? 그리고 우리 집 관리 잘 부탁해!” “네. 반팔, 반바지를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걱정 마시고 제가 환기부터 청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역시 사물인터넷이다. 내가 사는 서울은 사물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도시이다. 25개의 구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도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605.25km<sup>2</sup>의 넓은 면적을 가꿀 수 있었다. 문화시설, 문화재가 풍부하고 한국의 수도인 만큼 한국의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20년 전과 달리 도시 기후현상을 해결해 나간 서울은 다양한 산업을 바탕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여행을 위해 나와 친구는 여행지마다 하루씩 쉬다가는 열차 국토사랑호를 선택했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토순례!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역과 열차 또한 매우 발전되어 있다. 나는 AI 로봇에게 표를 건네주고 창문과 가까운 A-32번 좌석에 앉았다. 의자가 내 몸에 맞추어 조절되었고, 열차는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날 친구가 사는 여주로 향했다. 경기도 남동단에 위치한 여주는 분지이며, 연교차가 상당히 크다. 나와 친구는 오늘 여주에 있는 박물관과 명성황후 기념관 등에 가보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여주의 도자기 축제는 4~5월에 열려서 참여하지 못했다. 열차가 멈췄고, 나는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왔다. 저 멀리 손을 흔드는 내 친구가 보였다. 친구와 여주에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나자 여주는 아직 서울만큼 드론택배, 사물인터넷, AI 비서가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1차 산업, 즉 농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여주에 평야가 있어서 그런지 다양한 농작물도 있었다. 고구마, 참외, 쌀, 가지를 손에 들고 다시 열차에 올랐다.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이었다. 나와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며 문경으로 향했다.

문경은 경상북도 서북부에 있는 시로 동쪽의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소백산맥의 중앙부에 속하는 험준한 지형을 가진 곳이었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문경은 경상북도 제1의 광업산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그동안 광산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관광 휴양시설이 조성되어 휴가를 보내기 매우 좋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도 기간이 안 맞아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내 친구가 준비한

코스가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멋있는 경치를 가진 절,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온천, 4,2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문경새재박물관 등에 방문한 뒤, 숙소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은 대구와 경주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나와 친구는 오전 6시에 다시 열차에 올랐다. 다음에 방문할 대구는 경상북도 남부에 위치한 광역시로, 여주시와 비슷하게 분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듯 더웠다. 대구는 옛날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와 패션산업이 발달했다고 한다. 대구 역시 다양한 관광지를 갖고 있었는데, 근대 골목은 한국관광의 별이라고 불릴 만큼 대구만의 특별한 관광지였다. 팔공산은 자연 관광지로 케이블카를 타자 대구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대구는 앞서 방문했던 여주나 문경과 달리 서울만큼 발달되어 있었는데, 문경에도 전해진 특산물 사과가 매우 맛있었다. 다시 열차에 올라 문화유산의 도시인 경주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경주에서는 문화유산을 감상할 시간이 매우 많았다.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경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5개의 지구로 이루어진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 곳곳에 신라시대의 유적이 숨어있었다. 최대한 많이 감상하기 위해 나와 친구는 밥을 15분 만에 먹고 안압지, 괘릉, 문무대왕릉, 감은사지3층 석탑,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까지 가보았다.

듣기로는 경주 남산에는 정말 많은 유적들이 자연 속에 숨어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방문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 첨성대의 야경을 구경했는데 조명 때문이 아니라 첨성대와 경주라는 배경 그 자체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평야와 산지로 이루어진 경주는 지형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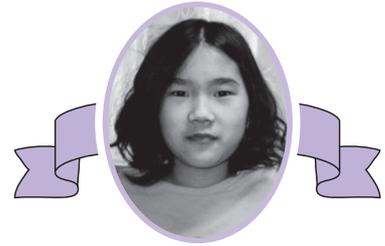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찬란한 문화의 도시였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사람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설을 해주는 시스템은 서울에서도 본적이 없는 대단한 기술이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걸어 다녔더니 숙소에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코까지 골면서.

드디어 부산으로 출발했다. 부산은 제2의 서울로도 불리는 도시로 해안가에 있어서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물류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하지만 서울과 같이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제조업, 어업, 중화학공업 등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국토사랑호가 정착지인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길, 그리고 즐거운 여행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나와 친구는 열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바다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부산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4일 동안 지내면서 해수욕도 하고, 다양한 장소를 신나게 돌아다녔다. 그렇게 8월 1일이 되었고, 나와 여주에 사는 친구는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 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행은 단순하게 보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마다 특산물을 알아본 평범한 여행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렌즈로 바라본다면 항상 나와 같이하는 아름다운 우리 국토에 대한 가치를 느낀 의미 있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띠리리릭.” 익숙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오랜만입니다. 이송윤님. 이번 여행이 즐겁고 가치 있으셨나요? 표정이 매우 밝으시네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국토



여예령 | 서산 성연초등학교 5학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사람이 퍼뜨리는 전파력이 워낙 세다보니 모든 생활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식당이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민이고 매일매일 집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엄마들은 직장 다니며 아이들 학업까지 신경 써야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각 가정에서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게 된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고 밖에 나가더라도 멀리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면 일회용 그릇으로 모든 음식이 배달된다.

얼마 전에 엄마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유난히 커다란 재활용 주머니가 분리수거 공간 밖에 따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큰 주머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병들이 넘쳐 밖에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경비아저씨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셨다.

엄마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인사를 하고 “요즘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라고 하자 경비아저씨께서는 “요즘은 다들 집에서 밥을 먹으니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셨다. 유난히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있었다. 각 가정에서 배달시켜 먹은 음식, 그리고 음료수, 물 플라스틱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동네에서만 이 정도로 많은데 우리 아파트 전체 아니 전국의 쓰레기는 얼마나 많을까? 상상이 가질 않는다. 이 많은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사실 나는 이번 국토사랑 글짓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버리고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다.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

이제는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환경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 분리수거만 잘 하더라도 환경을 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환경을 되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지금 막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큰 재앙이라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고 걱정이 되었다.

플라스틱은 썩어 분해되는 기간이 50~80년, 일회용 기저귀는 100년 이상, 알루미늄 캔은 80~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땅에 묻게 되면 그만큼 넓은 땅도 필요한데 현재 많은 양의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장 중에는 1978년 난지도 매립장이 있다고 한다. 15년 동안 서울

수도권 쓰레기를 이곳에 집하하여 1993년에 거대한 인공산이 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침출수 처리, 상부복토, 매립가스 처리, 사면안정 처리 4가지의 공사를 통해 버려진 땅 난지도가 되살아나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이 든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른들의 노력과 수고로 아직은 깨끗한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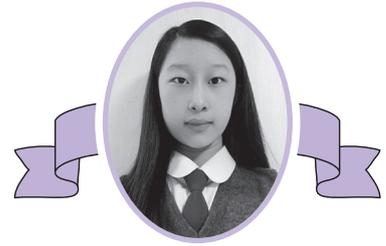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상상해 본다.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해서 쓰레기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말이다.

인간에게 해롭지 않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런 약품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지구가 더 오염되고 병들기 전에 빨리 되살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로 난 분리수거도 잘하게 되었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 전에 나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른들의 노력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국토에 살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낀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의 우리가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 물려주어야 한다.



##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



조민정 |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현대의 도시는 도로가 놓이고 도로를 따라 건물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졌다. 또한 도로를 따라 전기선이나 수도물배관과 가스배관이 연결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와 가스와 같은 연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연료는 연소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나쁜 물질이 발생되어 공기오염과 열섬현상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마을은 도로에 전기자동차가 다니며 건물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는 태양열 전지판이나 지열을 사용하여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태양열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공기오염의 걱정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이나 태양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겨울철에는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다. 이럴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절과 맑은 날씨에 충분하게 태양빛을 저장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사용하는 배터리처럼 태양열이 충분한 시간에 에너지로 저장해 두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모든 집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과 가스보일러가 배터리 저장실로 바뀔 것이며, 추운 겨울에도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하여 냉장고를 가동하며 얼음을 얼릴 수도 있다고 한다. 건물에서 필요한 전기를 이렇게 태양빛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신기하여 호기심이 생겼다.

지열을 이용한 방법은 땅속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한 방법이다. 땅을 파고 들어가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필요한 따뜻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지열을 이용한 온천이 있다. 몇 년 전 겨울방학 때 부산으로 온천여행을 간 적이 있다. 온천물이 따뜻한 것도 땅속의 열 에너지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데워진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TV에서 'next21'이라는 주거단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친환경 시범건물이었다. next21 주거단지는 옥상과 건물벽면에 나무를 심어 건물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연못이 있었고, 방화 용수나 청소용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양빛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창문도 신기했다. 이러한 친환경 주택과 에너지 절감 기술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신기했다. 여름방학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바닷가를 따라 하얀 풍차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께 여쭙보니 풍력발전기라고 하셨다. 제주도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에너지라고 하셨다. 이런 풍력발전기는 평창여행을 할 때도 볼 수 있었다. 결국 친환경 에너지는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대구는 어떠한 천연자원이 얻기 쉬울지 생각하게 되었다. 대구는 여름철 날씨가 매우 더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next21과 같이 옥상과 벽면에 나무를 심어 건물의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감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친환경 도시는 천연 에너지원이 풍부할 때 저장하여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태양열 이용이 있을 수 있고, 집 근처에 있는 봉무공원의 단산저수지도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나 소화용수로 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알지 못했던 태양, 빗물, 나무, 바람과 같은 자연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주변에 그대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현재 전기차가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이다. 얼마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정색 선에 연결된 자동차를 본 적이 있다. 아버지께 여쭙보니 전기차가 충전 중이라고 하셨다.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모습이 신기했다. 현재 사용되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에너지는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없어질 염려가 없는 천연자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미래의 도시는 이와 같이 천연 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를 대신하여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자기부상 캡슐을 타고 대륙과 대륙을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친근하게 천천히 다가온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에너지와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자기부상 캡슐여행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비행기 없이도 외국여행도 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는 도로에 친환경 전기차가 다니고 먼 거리 해외여행은 자기부상 캡슐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

현재 부족한 자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은 태양열과 지열, 그리고 지역에 따라 풍력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옥상과 벽면은 나무를 심어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빗물을 연못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활용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의 주변에 항상 있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람과 태양, 그리고 나무들이 오늘따라 더욱더 고맙고 소중한 아름답게 보였다.



## 마동석 아저씨처럼 건강해지는 우리 동네 '양천 도시 농업공원'



권서우 | 서울 지향초등학교 2학년

우리 동네에는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나도 처음 가본 곳인데, 이름은 '양천 도시 농업공원'이다. 텃밭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면 일 년 동안 우리 밭이 되는 '신정텃밭농장'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 집이 농장을 갖게 되어 따라가 보았다. 내 친구동생은 유모차를 타고 나는 키포드를 타고 출발했다. 처음 출발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걷다보니깐 조금 멀게 느껴졌다. 다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엄마가 곧 도착한다고 조금만 힘을 내라고 하셨다. 다 도착한 줄 알았는데 엄청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다. 키포드를 엄마한테 맡기고 오르막길을 올라갔더니 예쁜 튜립이랑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친구네 농장은 D단지여서 한참을 더 올라갔더니 땀이 뻘뻘 났다. 도착한 텃밭에는 친구 아빠 성함이 써진 팻말이 있었다. 친구네 할머니가 씨앗을 뿌려두셔서 우리는 물을 주기로 했다. 친구랑 번갈아가면서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물을 조금씩 흘렸다. 텃밭에는 감자, 고추, 상추, 가지, 방울토마토가 심어져 있었다. 밭에 포크가 지나간 것처럼 땅이 푹 파여 있었다. 밭모양이 꼭 한 줄 서기를 한 우리 반 같았다. 햇빛 때문에 등에 땀이 줄줄 흘렀다. 친구 동생이 벌레를 보고 울어서 내가 예쁜 무당벌레를 보여주었다. 무당벌레가 여러 마리 있었는데 색깔이랑 크기가 다 달랐다. 다음에 또 물을 주기로 하고 이제 내려가기로 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농장에 가보았더니 고추랑 방울토마토가 많이 달려있어서 신기했다. 이번에는 물을 조금만 주고 앉아서 상추를 따다. 싱싱한 상추를 따는 건 재미있었는데 쪼그리고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저렸다.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가져온 상추를 엄마가 깨끗이 씻어주셔서 점심으로 먹기로 했다.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햄을 구워주신다고 했다. 상추에 쌈장을 넣고 햄을 넣어서 한입에 쏙~ 넣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기절할 뻔했다. 나는 그날 상추를 처음 먹어본 건데 다음에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놀러오면 ‘양천도시 농업공원’에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텃밭에 물도 주고 싱싱한 상추도 따고 무당벌레도 잡으면서 건강해질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 집도 우리 가족의 텃밭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 사라지지마! 우리 동네야



이은서 | 대구 사월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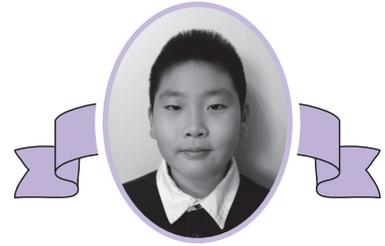
우리 동네는 참 좋은 곳이다. 내가 다니는 학원도 가까이 있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물고기, 학, 두루미들의 놀이터 강변도 있다. 내가 5살 때 마트에서 사탕을 샀는데 길을 걷다가 떨어트렸다. 나는 다시 할머니와 마트에 갔다. “사장님, 저희 애가 사탕을 떨어트렸는데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마트 사장님은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사탕을 주셨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때 마트 사장님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오래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없어져 버렸다. 그때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속상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문 닫힌 마트 앞에서 인사했다. 나는 우리 동네가 지금 이대로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대로 기억할 수 있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시끌벅적 뛰어놀고 공원에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아파

트는 매일 행복한 사람이 가득한 우리 동네, 행복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우리 동네는 조용하다. 아이들도 아파트 놀이터에 안 가고 어른들도 길거리에 많이 없다.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적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경비아저씨도 분리수거 잘해주시고 우리들도 마스크 잘 쓰고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럼 지구도 깨끗해지고 우리나라에 코로나19도 물러가서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는 나처럼 쑥쑥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놀이터에는 뛰노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 서준이 형에게



임하준 | 창원 자여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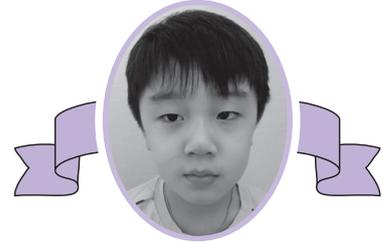
서준이형, 안녕? 나 임하준이야. 잘 지냈어? 우리 동네 아름다운 산책길을 소개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되었어. 그 산책길은 우곡사라는 절까지 가는 길인데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약 한 시간 정도 걸려. 걸어가다 보면 저수지가 나와. 저수지에는 오리도 있고, 물고기도 많고, 자라도 있어. 처음에 자라를 봤을 때 신기하고 귀여웠어. 그리고 어떤 날엔 올라가다가 뱀을 본 적도 있었어. 뱀이 돌 사이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 또 어떤 날엔 나무구멍 속에 있는 청설모도 봤었고 다람쥐가 쪼르르 달러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 너무 귀여웠어. 하루는 엄마랑 산책하고 있는데 모기가 내 팔에 붙어있어서 내가 탁! 잡았어. 모기가 피를 잔뜩 먹었었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엄청 큰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 너무 징그러웠어. 우곡사에 도착해서 시원한 약수를 마셨어. 이 약수는 깨끗하고 좋다고 소

문이 났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약수를 받아 가. 우곡사에서 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소리도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차분해져. 힘들게 올라온 뒤 먹는 간식은 엄청 맛있고 힘들게 올라온 보람을 느꼈어. 자주 와서 새소리도 듣고 쉬기도 하고 약수도 마시고 싶어. 내려가는 길에는 기분도 좋아지고 올라올 때보다 더 빨리 내려갔어. 나는 시원한 나무가 있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다양한 동물과 곤충들을 볼 수 있는 이 길이 참 좋아.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형이랑 이곳에 꼭 같이 와보고 싶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그럼 안녕.

2020년 9월 28일 하준이가



## 내가 꿈



이민준 | 서울 자운초등학교 2학년

바닷가 포구에 사는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간 나는 고기 잡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잡는 것 좀 구경시켜 주세요.” 나는 할아버지를 줄라 배를 타고 어장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쳐놓은 그물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딸려왔습니다. 쓰레기에는 비닐로 만든 과자봉지와 플라스틱 제품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니 고기가 잡혀야지.” 할아버지께서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어쩌면 그 주름은 내가 만든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소풍이나 나들이를 가면 과자를 먹고 봉지와 빨대를 그냥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국토를 깨끗하게 가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을

자율주행으로 해놓고 한숨 자야겠구나. 어제 어른들 일을 도왔더니 몸이 무척 피곤하구나.” 2040년이 되자 이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찍어주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찾아갑니다. 자동차 사고를 걱정하는 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내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시장님, 드디어 비닐과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는 무척 기뻐합니다. 내가 시장선거에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흙과 24시간 이상 닿으면 자연 분해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 국토를 깨끗이 하겠다고. 그런데 그 기술이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제는 우리 국토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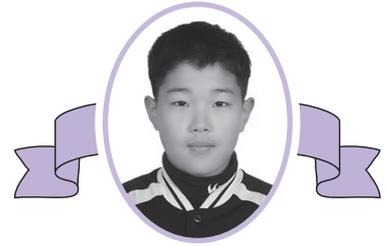
예전 내가 어릴 때 우리가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박힌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아버지의 한숨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비닐을 이용해 농사를 지은 후 이를 처리하지 못해 온 국토가 비닐로 오염되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비닐이 자연 분해되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국토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은 사랑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하셔서 한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지은 사랑아파트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받아 전환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예전처럼 태양에너지를 받기 위해 검은 집열판을 넓게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A4 용지만한 집열판으로 받아들인 빛에너지를 열이나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모든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며칠 동안 해가 나지 않을 때만 중앙에서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니 원자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만 수력발전소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예

전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가 오염되지도 않을 겁니다. 더 좋은 건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니 위험하지도 않고 폐기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토가 깨끗해 사람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에너지의 전부를 태양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야, 우리 국토가 이렇게 깨끗해졌으니 살기가 좋구나.” 나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애, 민준아, 무슨 꿈을 꿨기에 만세를 부르고 난리냐?”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잠을 깨니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우리 국토였는데…….” 꿈을 깬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모으면 자원이고 버리면 쓰레기로 국토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는 주변을 청소해 쓰레기를 되가져왔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절대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고 우리 국토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 도시 만들기



김도연 | 창원 사파초등학교 5학년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로 가는 하늘행 기차를 타고 하늘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들판에 갔다. 내가 이 들판을 보고 처음 생각한 것은 여기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난 빨리 시민들을 모았고 투표를 통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난 시장이 되자마자 집 100만 채를 지었고 지상에 살던 사람들도 슬슬 공중에 있는 도시에 왔다. 난 그 다음 시 이름을 정했다. 시의 이름은 하늘시였다. 난 시의 이름을 짓고 바로 은행, 시청,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약 천 개의 공공시설을 만들었다. 참고로 공공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들은 하늘자동차나 하늘기차, 하늘버스,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었다. 난 공공시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야구장, 놀이동산, 동물원이다. 먼저 야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장이기 때문이고, 놀이동산 또한 이런 이유이다. 마지막 동물원은 이유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하늘동물원에는 일반 동물들은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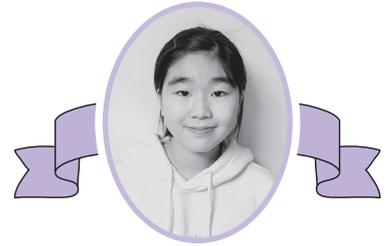
이고 멸종된 동물들도 로봇으로 진짜처럼 만들어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한테도 인기를 끌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원이 됐기 때문이다.

하늘시에는 관광객과 인구수가 늘어 하늘광역시까지 되었다. 하지만 이런 하늘광역시에는 단점이 딱 하나 있다. 바로 해양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양자원이 풍족한 지역과 교류를 했다. 하지만 바다가 있는 지역에 비해 신선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광역시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늘공장에서 한 달 동안 신선하게 해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 보관박스를 개발 중이다. 아이스 보관박스만 만들면 하늘광역시 시민들도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광역시에만 있는 특별한 미끄럼틀도 있다. 그건 바로 하늘광역시에서 지상까지 갈 수 있는 미끄럼틀이다. 하늘광역시는 지상과의 높이가 약 200m인데 이 미끄럼틀을 타면 약 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꼭 성인만 탈 수 있다. 둘째, 어지러워서 성인 중에 어지러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간편한 하늘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 난 앞으로 하늘광역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전국을 달리는 꼬마 여행가



윤지원 | 대구 왕선초등학교 5학년

“띠리링! 띠리링!” 오늘은 내 알람소리로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일어나자마자 지난 저녁 때 꾀 특별한 꿈이 내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었다. 나는 전국을 자전거로 달리는 꿈을 꾸었는데 정말 행복했고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꿈으로 꾸어서 너무 신기했다. 나의 특별한 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지금부터 나의 꿈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꿈속에서 나는 아빠와 함께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기로 하였다. “아빠, 저 정말 기대가 돼요!” 내가 신난 목소리로 말하니 아빠께서도 얼른 출발하자고 하셨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고장 대구에서 출발하여 충청도 단양, 강원도 평창, 춘천, 서울, 전주, 광주, 부산, 울산 순으로 총 8곳을 가기로 하였다. 꿈속이었지만 무척 설레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니 시원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들어 너무 행복했다. 달리고

달려 충청도 단양에 도착하였다. 단양은 마늘이 유명해서 아빠와 함께 유명하다는 마늘빵, 마늘통닭 등을 많이 사 먹었는데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빵, 통닭 등으로 먹으니 마늘 향은 났지만 무척 맛있었다. 맛있는 것들을 먹고 아빠와 함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에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목적지인 강원도 평창으로 출발하였다. 한참 가다보니 다람쥐를 보았는데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꼭 갈색구름이 통통 뛰어나는 것 같았다. 다람쥐 덕분에 기분 좋게 평창에 도착했다. 평창은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로 날 맞아주었다. 아빠와 함께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멀리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 너머로 바다가 보여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양떼를 모는 개(보더콜리)가 양떼를 몰았는데 양들이 너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너무너무 신기했다.

다음 목적지는 춘천! 춘천에 도착하니 날씨가 정말 좋았고 하늘이 꼭 진한 파란색 물감으로 하늘을 칠해 놓은 것 같았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춘천에서 유명한 춘천 닭갈비를 먹었는데 매콤달콤 졸깃졸깃 자꾸 생각나는 맛이였다. 다음 목적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살아온 대구 토박이인 나는 서울을 가본 적이 별로 없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남산타워가 보였고,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중심, 수도인 만큼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 서울에서는 마트에 들러 아빠는 에너지음료, 나는 에이드를 마셨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니 자전거를 오래 타서 힘든 다리에 불끈 힘이 솟아났다. 서울은 가볼 곳이 너무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궁금하여 경복궁, 덕수궁 등 옛날 선조들이 계시던 궁을 가보았는데 궁 앞에는 멋있고 절도 있는 문지기들이 있었고, 궁을 둘러보니 우리나라 역사와 선조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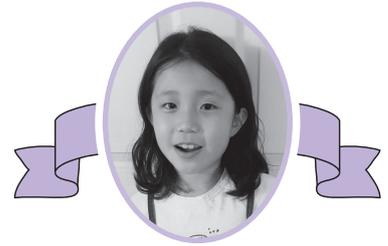
서울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전주로 갔는데 전주는 옛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한옥마을이 유명하였다. 한옥마을에 가서 선조들이 만든 한옥을 보니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우수성을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광주로 출발! 자전거로 달릴 때 자전거 도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타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달리다보니 광주에 도착하였다. 광주에서는 나무가 많은 둘레 길을 달렸는데 즐지어 있는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다. 광주에 유명한 곳은 무등산이라고 하여 무등산에 들렀다가 무등산 수박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수박 중에서 최고였다. 다음에 광주에 온다면 꼭 다시 한 번 무등산 수박을 먹을 것이다.

광주를 지나 한참을 달려 부산에 도착하였다. 아빠와 나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도착했는데 모래 백사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였다. 수영을 하다 보니 몸이 차가워졌는데 밖으로 나와서 모래찜질을 하니 차가워졌던 내 몸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부산에서는 해수욕도 하고 모래찜질도 하며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인 울산! 울산에 갈 때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도착하고 벤치에 앉아서 지금까지 다녀온 곳을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고,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꿈은 꺾지만 정말 이루고 싶던 것을 이뤄낸 것 같아 뿌듯했다. 나중에 정말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한반도 전체를 자전거로 달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꿈에서는 자전거 길이 많이 없어서 불편했다. 자전거 길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나의 꿈인 자전거로 전국 달리기 성공하고, 다른 나라도 자전거로 여행하는 그런 멋진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전국을 달리는 꼬마 여행가이다!”



## 국토 지킴이가 될거야!



최아영 | 수원 일월초등학교 2학년

내 이름은 애니카다. 나는 오늘 놀이공원에 간다. 나는 평소보다 설렘어. 왜냐하면 오늘은 친척들과 가는 여행이었거든. 이모와 이모의 아들 피터가 온단다. 나는 내 여동생 라라벨을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 “이야! 신난다! 이모와 피터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다니! 정말 신나!” 엄마가 소리쳤어. “애니카, 짐은 다 챙겼어? 양말은 신었고?” “신었어요!” 엄마는 나보다 더 신난 것 같았어. 그때 ‘뽕뽕!’ 경적 소리가 나더니 이모가 유리창으로 고개를 배꼽 내밀었어. “어서 타, 애니카!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이모.” 우리는 이모의 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했어. 차를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모가 간식으로 싸온 꿀꿀과자를 먹으면서 가니 금방이었어.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하였고 놀이공원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 우리는 표를 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우리 회전목마 타자.” “그래, 좋아.” 우리는 제일 줄이 짧은 회전목마

쪽으로 뛰어 갔어. “자! 출발합니다!” 빙빙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까아악! 으악!” 갑자기 회전목마가 빨리 돌더니 뿅뿅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데려갔어. 그곳에는 엄마들이 쓰다버린 고무장갑, 콜라 캔, 과자봉지, 플라스틱 물병 등이 있었는데 그 물병 안에는 썩은 물이 들어있었어. 어느새 일어난 피터가 고함을 지르며,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으악! 누나가 어른으로 변해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피터! 너도야! 일단 가보자.” 우리는 쓰레기들을 피해 걸으며 낡아가는 간판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 거기엔 놀이동산이라고 적혀있었거든. “여기가 놀이동산이라고? 하늘은 갈색이고, 식물도 다 말라있어!” 그때 공중에서 희미한 빛이 스르륵 땅으로 내려왔어. 그 희미한 빛은 계속해서 빛나더니 빙그르르 돌며 뿅! 소리와 함께 한 요정이 나타났어. “안녕? 내 이름은 키미야. 만나서 반가워. 지금은 2040년 5월 13일이야. 너희들은 놀이동산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아니? 그건 바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이야. 난 아직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살던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 바람에 나는 친구들을 잃었다고! 너희들은 꿀꿀 과자를 먹고 땅바닥에 버리고 콜라를 먹고 캔을 팽개쳤지. 그게 얼마나 내 아픔인줄 알아?” “어……. 미안해……. 귀찮고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게 장난이니? 그리고 매년 때문에 하늘이 아파해. 너희들은 집에서 3분밖에 안 걸리는 마트를 갈 때도 차를 타고 가잖아.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줘. 이리 와봐.” 우리는 키미를 따라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갔어. 그곳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파리가 웅웅 거렸어. “자, 애들아 우리 같이 여길 치우자. 이 집게로 쓰레기를 줍자.” 나는 콜라 캔, 과자봉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어. 힐긋 보니 피터는 꽃과 나무를 심고 있었어. 길게 자란 잔디도 깎고, 죽어가는 식물들에게 물도 주었어. 놀이기구

도 새로 수리했어. 페인팅을 하고 물 묻힌 수건으로 벤치도 닦았어. “자! 다 되었어. 너희들이 도와주어서 놀이공원이 다시 예뻐졌어! 정말 고마워.” 키미가 싱글벙글 웃었어. 그 순간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우리는 다시 2020년으로 돌아왔어. “만세! 누나! 우리 환경 지킴이와 국토 지킴이가 되자!” “좋아!” 나는 소리쳤어. 우리는 와구 와구 초콜릿을 뜯어 먹었어. 쓰레기를 치우느라 배고팠거든. “초콜릿 껍질 그냥 바닥에 버려.” 라라벨이 말했어. “안 돼! 하늘과 땅이 아파한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아니면 키크보드를 타고 다닐 거야! 국토 지킴이가 될 거라구!” 엄마와 이모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 나는 오늘도 키미와의 만남을 추억해. 국토 지킴이 키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 미래의 내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



강수안 | 제주 아라초등학교 6학년

내가 사는 제주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우뚝 솟은 한라산, 개성을 뽐내는 오름, 신비로운 용암동굴과 지질공원, 울창한 숲, 정겨운 돌담, 그리고 섬을 둘러싼 바다……. 이런 제주의 매력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늘 보는 풍경이지만, 언제 보아도 가슴이 뛰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 뒤에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이 숨겨져 있다. 한라산이나 오름을 오르다가도 숲길을 거닐다가도, 바닷가의 바위 틈새에도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가 천지다. 테이크아웃 음료잔, 페트병과 캔, 아이스크림 막대, 과자봉지부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다버린 생활용품, 공사 자재들, 산책하던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내가 가본 다른 곳도 쓰레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곳도 제주만큼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지는 않았다. 제주도는 돌이

많고 섬 지역이므로 쓰레기 매립도 어렵다.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과포화 상태를 한참 넘어섰다는 기사도 보았다. 매일 같이 넘쳐나는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도 나는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구를 걱정하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오늘도 골목에서 앞서 가던 차의 창문이 열리더니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가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길에 쓰레기를 당당히 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본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아니 모든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모두가 자연의 주인이고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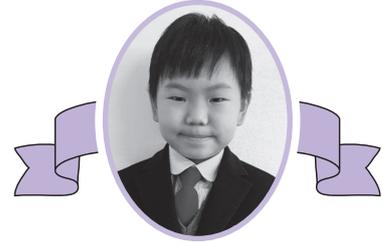
만일 내가 제주시의 시장이 된다면 나는 제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가장 먼저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우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다. 어린이집부터 학교, 노인정까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온 제주 시민에게 알려 ‘쓰레기 없는 제주’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하지 않게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월급을 드리고 싶다. 또 분리수거 후 재활용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주시를 운영하고 싶다. 봉사를 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환경보호 활동을 부탁할 것이고, 쓰레기 매립이나 압축처리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세금 활용 비율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동식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여 생물 다양성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

할 것이다. 녹지를 가꾸고 보호하며, 길고양이나 들개들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 관리에 힘쓰고 유기동물 입양 등을 시에서 관리하여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 등 모든 생명이 존중되는 제주시를 만들고 싶다.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생물의 다양성이 지켜질 것이다. 또한 월령리 선인장 마을, 위미리 동백 마을처럼 각각의 마을마다 대표할 수 있는 동식물을 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제주 전역에서 동물과 식물이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 우리 국토를 사랑한다. 우리 국토는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모두모두 보호해야 하지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를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쓰레기를 잘 줍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동식물을 잘 보살펴줄 것이다.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과 바다 주변 쓰레기 줍기와 유기동물 돌보기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나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할아버지 농장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도예찬 |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이번 주말 할아버지 농장에 갔었다. 농장에서 꽃과 나무랑 많은 다른 식물들을 보았다. 할아버지 농장에는 많은 것이 다 예쁘게 되어있었다. 농장은 아주 활기찼다. 그 동안 비도 많이 왔고 흙도 좋아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다. 할아버지 농장 이름은 청마농장이다. 왜냐하면 파란 말처럼 활기차기를 바라서이다.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하셨기도 하지만 우리 자연의 흙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할아버지 농장에서 아기를 업고 있는 여치를 보았다. 금빛 나는 소나무가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카메라로 할아버지 농장 곳곳을 많이 찍었다. 그리고 형이랑 같이 호미와 삽으로 밭의 흙을 부드럽게 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면 지렁이가 잘 돌아다닐 수 있고 식물들이 쑥쑥 잘 올라올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위험하다고 걱정하셨지만 형과 나는 새싹들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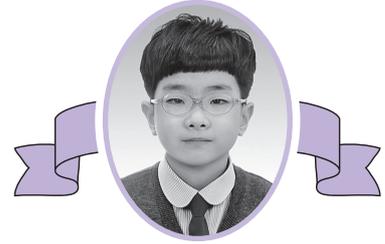
버지 농장은 우리 국토이다. 우리 국토 덕분에 내가 옥수수, 블루베리, 고구마,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다 우리 국토 덕분이다. 나는 우리 국토를 사랑한다. 우리는 국토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토에 쓰레기도 버려지고 우리 땅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나의 장래희망은 과학자이다. 백년 뒤에는 쓰레기도 많이 버려질 것이고 국토가 더 상할까봐 더 걱정이다. 그래서 30년 뒤에는 내가 우리 국토를 지키는 로봇을 만들 것이다. 그 로봇이 지렁이도 땅에 많이 살게 해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가 상하는 일은 아주 슬픈 일이다. 나는 할아버지 농장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국토를 사랑한다. 과학자가 되어 로봇을 만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길가의 쓰레기 줍기부터 하겠다.

국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우리도 국토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 국토를 많이많이 사랑할 것이다. “국토야! 파이팅!”



## 두근두근, 기대되는 시간



구동윤 |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자, 여러분! 여기는 재활용 놀이공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신난다.”

“야호! 빨리 하자, 빨리.”

고모와 동현이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활용품으로 재활용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짹 짹 우유팩을 잘라 물배를 만들고 페트병을 연결해서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다. 케첩 통으로는 신나는 바이킹을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는 인기 폭발 알라딘 체험관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놀이기구에 이름표를 붙이고 자유이용권 팔찌를 나눠주었다. “환상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데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가 롤러코스터를 잡고 빨리 움직이면 고모와 동현이도 빨리 움직이고 내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면 고모와 동현이도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리고 최고 속도로 360도 회전하면 고모와 동현이도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360도 회전했다. “우와!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다.” “으악! 나 살려!” 우리가 만든 놀이기구들은 정말 재미있고 신났다. 땀이 뻘뻘 났지만 더운 줄도 몰랐다. 놀이기구를 다 탄 다음 알라딘 재활용 체험관으로 들어갔다. 고모는 싹둑싹둑 우유팩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동현이는 우당탕탕 소란을 피우며 열심히 장난감을 만들었다. “우와! 고모, 이게 뭐야?” “응, 양말 통이야.” 고모는 우유팩으로 양말 통을 만들고는 “이 통에 양말을 넣어서 보관하면 양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보기도 깔끔해서 좋아.”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다. “와! 신기하고 멋지다.” 나는 재활용품들이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기구로 변신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분리수거만 잘 해도 깨끗한 우리 국토를 만들 수 있단다.” 고모의 말씀에 나는 깨끗한 국토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다. 분리수거를 잘 하고 전기와 물을 아껴쓰는 것도 우리 국토를 아끼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모, 우리 다음에는 재활용품으로 뭘 할까?” “음……. 다음에는 싱크대를 변신시켜볼까?” “좋아, 좋아. 우리가 재활용품들 깨끗하게 씻어서 모아둘게.” 나는 이제 재활용품들을 모으고 분리수거하는 일이 즐거워졌다. “다음에는 어떤 변신이 있을까?” 두근두근 다음 시간이 기대된다.

# 심사평 및 입상자 명단







## 상상과 경험이 잘 버무려진 우리 국토 이야기들

강인석 | 아동문학가

주어진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제가 주어지면 글의 소재와 형식이 제한되고, 생각의 범위까지도 제한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글, 설명하는 글, 어디서 본 듯한 글들이 많아집니다. ‘주제’가 주어진 글쓰기에서 좋은 글을 쓰는 요령 중 하나는 그 주제를 자기만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국토’라는 큰 주제 아래서 펼쳐진 제25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대회에 응모된 많은 글들을 읽는 가운데 유독 눈길이 많은 작품들은 단연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낸 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 자신의 생각이 제대로 담긴 글들은 읽는 이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글쓰기의 주제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20년 뒤의 국토’,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국토’, ‘내가 시장, 군수라면’이라는 주제는 미래의 우리 국토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끌어내는 주제였습니다. 반면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우리 국토를 위한 나만의 슬기로운 생각’, ‘사이버 전시관’ 등은 오늘날의 우리 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주제 덕분에 미래 상상과 현재의 경험이 잘 버무려진 다양한 국토 이야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접수된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동안의 대회와는 조금 다른 몇가지 경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해까지는 미래에 대한 기발한 상상들을 담은 글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미래 상상상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현실이 미래에도 반영되어 어두운 국토의 미래를 담아낸 글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마다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여행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토를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 사랑을 담아냈던 여행이야기들이 줄어든 것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가까운 동네, 일상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소개하는 글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국토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과 함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글들이었습니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심사에 오른 작품들 중에서 세 작품이 유독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석초 3학년 이다온 어린이의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와 소안초 4학년 이태의 어린이의 ‘뜨란채 수직농원의 재탄생, 빈 아파트에서 주민의 생활 터전으로’, 상인초 6학년 이연주 어린이의 ‘일요일 아침 백두산 다녀오기’ 세 편입니다. 두 편은 미래의 상상을, 한 편은 현재의 일상을 담아내었는데 모두 문장과 구성 면에서 뛰어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의 사연으로 인해 서울에서 남양주로 이사온 뒤, 우리 자연과 국토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일상과 연결해낸 이다온 어린이의 글이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 그 생각을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스스로가 성장하는 데도 큰 힘을 줍니다. 수상자들뿐 아니라, 그 대단한 일을 해낸 모든 참가 어린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심사평을 마칩니다.

# 입상자 명단

##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상 |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3	이다온	남양주	심석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 금상 | 국토교통부장관상 |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4	이태의	부천	소안	뜨란채 수직농원의 재탄생, 빈 아파트에서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 금상 |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6	이연주	부천	상인	일요일 아침 백두산 다녀오기

## 은상 | 국토교통부장관상 |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4	장연우	서울	서울영동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2	장재원	대전	대전성룡	2040으로 고고!
5	김문호	대구	영신	코로나19로 인해 발견한 우리 지역의 소중함

## 은상 |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6	김희성	김포	고촌	바이오 메이커
2	제갈윤서	대구	영신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팔공산에는 신승겸 장군 동상!
5	최은지	대구	영신	코로나19, 뒤바뀐 미래

## 동상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3	박정연	대전	대전성룡	외갓집 가는 길
4	이제인	고양	흥도	내가 만드는 자연도시!
6	송예진	대구	영신	사소한 것
2	이다솜	울산	문현	연어야 안녕!
2	양서준	안양	귀인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
5	이주오	대구	영신	나의 비밀의 정원 '도동서원'
3	채준우	부천	상인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4	류재진	창원	사파	아빠의 고향은 남해 상주리입니다.
6	이종수	인천	인천부마	기억이 공존하는 산곡 1동
2	권지환	제천	홍광	내가 꿈꾸는 마을
3	도예원	부천	상인	개발! 생태계의 악마
5	정한울	김해	김해울산	평화를 사랑한 가야인의 고장, 김해!
1	주이솔	부산	화정	20년 후 나의 하루
6	이도연	대구	영신	2040년 우리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6	손채원	대구	영신	내가 만약 대구시장이라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래요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2	성지민	창원	자여	행복이 가득찬 '봉산 통새미'
1	김민송	대구	영신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우리 국토
5	이송윤	부천	상일	가치 있고 같이 있는 우리 국토
5	여예령	서산	성연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국토
6	조민정	대구	영신	내가 꿈꾸는 미래 국토
2	권서우	서울	서울지향	마동석 아저씨처럼 건강해지는 우리 동네 '양천 도시 농업공원'
2	이은서	대구	대구사월	사라지지마! 우리 동네야
2	임하준	창원	자여	서준이 형에게
2	이민준	서울	서울자운	내가 꾸 꿈
5	김도연	창원	사파	도시 만들기
5	윤지원	대구	대구왕선	전국을 달리는 꼬마 여행가
2	최아영	수원	일월	국토 지킴이가 될거야!
6	강수안	제주	아라	미래의 내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
1	도예찬	대구	영신	할아버지 농장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1	구동윤	대구	영신	두근두근, 기대되는 시간

## 국토사랑상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6	문서연	대구	영신	물감
2	이재원	안양	귀인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동네 '귀인동' 자랑하기
2	오현서	창원	자여	2040년
1	이다현	서울	서울창경	살기 좋은 나의 세상! 나의 국토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5	김도연	대구	대구용지	동네 한 바퀴
2	구교윤	안양	귀인	세계 넘버1! 대한민국 국토!
5	김보민	대구	대구매호	자랑스런 우리나라
4	김나현	울산	울주명지	우리 가족은 태화 강변을 좋아해
6	서예원	부천	상인	별이가 전하는 이야기
5	오윤지	속초	중앙	나의 여름휴가, 금강산에 가다.
1	백지울	대구	영신	내가 80살에도 즐겁게 캠핑을 할 수 있으려면?
1	성원서	대구	영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느낀 환경보호법
4	이아린	대구	영신	미래에도 아름다운 우리 마을
5	이나현	울산	문현	사라지지마, 반구대 암각화야
6	김민경	충주	목행	고마운 문경새재
3	공민선	울산	울주명지	아름다운 자연, 문화유산 그리고 산업도시 울산
2	제갈승현	대구	영신	눈처럼 하얀 이웃을 소개합니다!
1	홍윤슬	대구	영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행복한 시지동
5	강서영	제주	한라	시간여행
6	강영훈	대구	영신	나의 고향, 하동
5	이은재	서울	서울돈암	옛날 환경과 지금의 환경
6	백지윤	서울	서울매현	2020년 나에게 2040년 내가
1	최현서	대구	영신	내가 시장이라면
6	김경서	대구	영신	2040년의 대한민국
5	최유빈	부산	대연	우리 조상의 손 요술의 손
6	조예진	대구	영신	코로나19 후 우리는?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2	손연서	대구	영신	우리 대구를 소개합니다.
5	김태윤	삼척	장원	천년의 수도 경주 기행문
6	서지수	대구	영신	우리나라의 환경
5	홍성재	부천	계남	미리내 마을 행복길이 또 다시 펼쳐지기를
5	최희원	대구	영신	과거의 나에게
6	전성진	대구	영신	앞산에서 만난 태조 왕건의 자취
3	우연재	화성	솔빛	자전거 타고 우리동네 한 바퀴
4	채수아	서울	서울상암	다시 살아난 우리동네 상암동!
1	박건아	대구	영신	사랑해요 대한민국
1	이서윤	대구	영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2	박성윤	대구	영신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마을
5	김하울	양주	유양	즐거운 국토 여행
5	유제은	대구	영신	두산동, 멋진 우리동네
2	정여준	나주	빛누리	15년 뒤 우리 국토의 변화된 모습
5	최시연	서산	성연	2040년 오늘
6	홍석휘	부천	상인	국토 자격증
6	김채원	대구	영신	애들아 '2040년'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세상이 생각 나니?
2	유지민	전주	전주서일	2040년 어울림 숲에서 살아요!
5	조준석	대구	영신	내가 시장이라면
6	김주현	대구	영신	반드시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땅, 독도
3	강형석	창원	사파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6	임사랑	서산	서림	행복한 우리 지역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4	도예준	대구	영신	아껴야 하는 국토
4	김지우	울산	울주명지	신나는 울주 한 바퀴
4	이정원	대구	영신	빛나는 달구벌 만들기
5	전하빈	양주	유양	코로나19가 끝났다! 하지만 국토와, 일상생활은?
6	오채은	대구	영신	미래의 도시
3	전하은	청주	산남	느릿느릿 걸어본 동네 한 바퀴
2	윤태민	하남	하남풍산	우리동네 멋진 하남
5	신영선	양주	천보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옥정
2	정주원	아산	아산북수	2040년, 국토의 미래를 만나다
6	조채연	창원	사파	내가 시장이라면 우리 마을을 이렇게 가꿀래요
6	임아란	부천	계남	보름달에 소망을 담아
6	최예린	대구	영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만나는 '온라인 사회'
6	손유진	창원	사파	우리나라, 우리동네,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떻게 변할까?
5	이성윤	대구	영신	나의 고장 대구
2	이유화	대구	대구매호	우리동네를 지키자
3	김도영	대구	영신	내가 시장,군수라면 우리 도시,마을을 이렇게 바꿀래
5	임수빈	대구	대구매호	잊고싶은 기억
2	김현우	목포	목포부영	우리동네 바닷가 산책로에서 있었던 일
4	황준서	창원	사파	나의 꿈과 함께 자라고 있는 사파동!
6	박서연	창원	사파	발전된 대한민국
6	김시우	울산	울주명지	국보 147호와 국보 285호는 무엇일까요?
2	임채원	대구	영신	아름다운 우리나라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5	최아영	대구	대구매호	그리운 날들
5	서지영	대전	대전성룡	나의 2040년 하루 일상
6	박지우	대구	영신	코로나로 인해 변한 나의 생활
6	안정원	대구	영신	제주도로 렛츠고!
3	하영진	대구	영신	로봇이 정답일까?
2	박규현	창원	자여	우리동네 단감 공원
5	이성희	문경	점촌	국토사랑은 지키고 보전하는 것
5	이소희	인천	인천만수북	도시 속 자연에 놀러올래?
4	한지성	부천	계남	발전할수록 깨끗해지는 환경
5	정수빈	문경	점촌	우리의 꿈과 함께 자라는 우리 국토
5	이가은	대구	대구용지	지윤이의 하루
4	서제현	서울	서울신동	2040년 도시 개발에 대하여
6	김진현	구미	송정	신비로운 섬, 울릉도 할머니 집
5	신동희	수원	영일	우리 동네 수원
5	조예진	청주	산성	우리 국토가 방긋 웃어요
2	이라을	안양	귀인	살기 좋은 국토, 깨끗한 국토 만들기 위한 나만의 슬기로운 생각
2	하도경	안양	귀인	보물섬 독도가 궁금해요
5	김요한	서울	서울매현	동네는 작아도 크고 많은 자랑거리
6	박지형	충주	목행	호암지
2	서예나	대구	대구동천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4	이승원	대구	대구매호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
2	연소율	안양	귀인	살고 싶은 우리동네, 평촌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4	이하랑	구미	왕산	국토TV를 보고 느낀점
5	한기동	세종	보람	코로나가 끝난 후 달라진 세상
3	이예준	대구	영신	우리 고장의 미래 모습
1	김정훈	대구	영신	나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다.
1	구예슬	대전	어은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2	권나경	창원	자여	깨끗한 국토 만들기
5	강동완	창원	사파	우리의 호랑이 지도
5	백동엽	서산	성연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 국토슬기상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5	신인규	대전	신탄진용정	우리 국토의 소중한
4	강예린	서산	인지	제주도야, 너 참 예쁘구나!
3	이서우	부천	상인	시간은 동전과 같다
3	안초희	대구	영신	2040년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2	박송현	대전	대전성룡	박송현 어린이 시장의 슬기로운 국토 생활
2	송우진	창원	삼정자	어서와, 창원은 처음이지?
6	이동건	울산	함월	중국 친구와의 태화강 국가정원 나들이
2	박태준	용인	관곡	학교 가고 싶어!
3	김효재	창원	사파	우리의 동네엔 이런 것이 있어요.
3	모신혜	서울	서울대도	깨끗한 국토야 돌아와라!
2	최세영	하남	나를	씨앗 도시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5	박시현	창원	사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고장 이야기
2	박근형	대구	영신	소중한 우리 국토
2	최시윤	안양	귀인	아름다운 우리나라
6	성예인	대구	영신	우리의 협동심을 시험하기 위한 과제, 코로나 바이러스-19
6	홍서현	동해	청운	2040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2	최시아	안양	귀인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4	김예리	대구	영신	내가 사랑하는 신천
3	강우석	창원	사파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6	문지원	서산	성연	내가 만약 서산 시장님 이라면
4	박서현	대전	대전성룡	2040년, 미래 한반도 국토기행
5	조예원	대구	영신	2040년의 내가 쓰는 편지
6	류기백	대구	영신	저라면 우리 국토를 이렇게 만들래요!
6	고가연	제주	신광	섬소녀의 육지여행
5	정수안	대구	대구사월	갑자기 대구에 코로나19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났다.
5	채세린	대구	대구수창	코로나19와 우리의 일상
6	제갈린	대구	영신	살기 좋은, 푸른빛 국토
5	이규빈	창원	사파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5	김시윤	평택	현촌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3	이수빈	창원	사파	또 계곡 가고싶다.
5	채지훈	대구	영신	발달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친환경적 삶을 살아가기
5	나하은	동해	청운	2040년의 우리 국토
5	강민채	천안	천안용소	우리 국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1	신성우	대구	영신	아름답고 멋진 우리 마을
2	권기현	대구	영신	아름다운 넷 동네
5	곽형섭	대구	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를 살리라
6	김아현	부천	계남	나의 행복한 무지개 마을
6	강이안	제주	아라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6	김다현	창원	사파	뒷 놀이터
4	윤솔찬	서산	성연	자연과 더불어
3	노현진	부천	상인	욕심을 버려요
5	장도은	창원	사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고장 이야기
4	정유라	부천	석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4	채훈	수원	영동	수원을 소개합니다.
6	정도현	창원	사파	내가 시장, 군수라면 우리 도시, 마을을 이렇게 가꿀래요
4	김정원	대구	대구시지	새로운 일들
6	차시은	수원	황곡	제민천에서 찾은 소중한 추억
6	하주현	대구	영신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5	이유하	세종	나래	미래로 가는 세가지의 갈림길
5	김태양	청주	중안	우리집은 뒤에서는 산이
6	김민건	제주	신광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1	이현재	대구	영신	우리 동네 자랑거리인 '수성구민 운동장'을 소개합니다.
6	이지호	수원	영동	놀수록 행복한 우리 도시
1	권정범	대구	영신	다녀오겠습니다.
5	강지민	창원	사파	코로나 종식, 그 후의 삶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5	강유진	대구	영신	2040년에 쓴 나의 일기장
6	한정현	부천	석천	이사가기 싫어요
6	정문관	대구	영신	꿈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안평'
1	하임률	대구	영신	코로나19 이후로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변할까?
5	김루하	서울	서울대모	2040년, 우리 국토의 모습
2	배예린	창원	자여	살기 좋은 우리동네
3	박지수	대구	영신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법
4	이유림	이천	한내	2040년 미래에서 온 일기장
6	윤준찬	대구	영신	2040년의 우리나라
6	손희성	대구	영신	미래의 우리 국토
6	홍석우	제주	신광	20년 후
5	우승진	창원	사파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1	이채원	대구	영신	내가 좋아하는 두리마루 숲
4	장윤서	충주	충주성남	나의 고장 이야기
6	김소원	대구	영신	코로나19가 끝난 후 우리들의 모습은?
3	이지현	대구	영신	2040년의 대구
6	이서운	대구	영신	자랑스러운 우리동네
3	이승기	세종	늘봄	2040년 나의 도시 세종
4	노유림	남양주	심석	코로나 플라스틱 공해로부터 우리 국토 지킴이 되기
3	최서현	서산	성연	내가 지킨 소중한 국토
3	박병건	창원	사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고장의 장소
5	윤준성	대전	대전성룡	일상생활 체인지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5	서하은	대구	영신	20년 뒤에는 상상이 현실로?
6	백서윤	대구	영신	코로나가 휩쓸고 간 우리 국토의 모습
6	마건우	대구	영신	미래의 환경 오염과 플라잉카
5	김준표	창원	사파	새로운 마을 가도시
5	김세훈	대구	영신	코로나19로 달라져버린 우리 국토의 모습
4	송유나	창원	삼정자	엄마 어릴적에
4	이승연	창원	사파	우리고장
6	박민찬	대구	영신	1960~80년대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었다.
4	한서준	서울	서울매현	국토 발전 전시관 사이버투어, 국토TV를 보고 느낀점
2	강채원	대구	영신	두 달 간의 경주
3	이효린	창원	사파	어린시절 내가 살던 마을
5	강수한	대구	영신	코로나에 대처하는 미래 일상
6	도예서	부천	상인	어서와 2040년은 처음이지?
6	최주원	대구	영신	희망으로 물든 마비정 벽화 마을
5	전소미	대구	영신	2040년 12월 15일 전소미 박사의 하루
6	안설아	서울	서울매현	정감있는 우리동네
6	조윤서	대구	영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돌려준 환경
6	천윤수	대구	영신	코로나19,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5	김태현	대구	영신	내가 대구시장 이라면
5	이예령	이천	한내	우리 마을을 자랑합니다
5	노준철	양주	유양	사랑하는 우리동네
5	임아현	창원	사파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변할까?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5	황해준	대구	영신	자랑스러운 우리 땅
2	조현서	안양	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2	이예준	대구	대구가창	입이 떡 벌어지는 미래의 우리동네
2	조현진	대구	영신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6	김범준	대구	영신	미래 기술과 우리의 생활모습
2	문예성	창원	자여	살기 좋은 자여마을
3	이한결	부천	상인	내 소중한 친구 국토
4	윤서준	부산	미남	깨끗한 국토 생활
5	허윤서	대구	영신	새로 바뀐 우리 국토
2	배세완	경산	성암	우리집을 탈출하고 싶어
2	김온유	대구	영신	2040년 나의 하루
1	박서환	대구	영신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2	최지윤	안양	귀인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6	조현재	제주	아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5	이예은	창원	사파	2040년 후 우리 국토의 모습
1	이혜주	대구	동대구	소중한 나무, 소중한 우리나라
5	강민지	창원	사파	우리 국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백승주	시흥	금모래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한 명의 실천
1	박기민	대구	영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을 꿈꿔요
5	이도겸	대구	영신	2040년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5	신주하	서울	서울매현	우리동네의 20년 뒤 모습
3	김여울	대전	대전둔원	연두의 초록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1	정유니	대구	영신	안동 하회마을
5	서예린	창원	사파	깨끗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1	최지율	대구	영신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2	백채현	창원	자여	우리동네 자랑하기
6	고예진	제주	신광	우리동네 소개하기
5	어찬희	서울	서울매현	우리동네의 사계절 소개
5	류채원	대구	영신	내가 시장이라면 대구는 이렇게 가꿀래요!
5	이한유	대구	영신	나의 상상이 미래가 된다.
4	전고은	대구	영신	대구, 경북의 새로운 하늘길
6	백서영	대구	영신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2	정서연	대구	대구매호	지옥에서 탈출
5	신비	시흥	금모래	내가 사는 시흥의 자랑거리
3	김윤오	양산	하북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고장 이야기
5	김문선	수원	영덕	하나의 행복
5	박시우	대구	영신	스마트 시티, 2040
3	김태성	서산	성연	내가 시장이라면
6	김민재	대구	영신	국토사랑
6	유아인	대구	영신	코로나와 우리 국토
3	이윤슬	창원	사파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6	정지훈	대구	영신	2040년 9월 20일 일요일 나의 일기
6	김태환	창원	사파	둘레길의 추억
4	이예린	창원	사파	우리집, 우리동네, 우리학교 등은 어떻게 변할까?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3	신현정	창원	사파	국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주제
4	이현민	창원	사파	2040년의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3	구나은	시흥	은빛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4	하수민	대구	영신	우리 국토가 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 함께 지켜요!
2	최영원	창원	자여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6	이재은	대구	영신	돌할아버지 탐험기
4	장혜원	서울	서울신도립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
2	양영준	창원	자여	사랑하는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한
5	신해인	대전	대전성룡	우리 모두 지켜야 하는 우리땅, 독도
5	이재원	대전	대전성룡	어젯밤 꿈 속에
6	이효주	대구	영신	쓰레기
5	박상일	창원	사파	코로나19 뉴스
1	김수민	대구	영신	드론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2	김나빛	대구	영신	수성못의 사계절
6	문수진	부천	상인	지구가 주는 마지막 경고
6	이채범	대구	영신	신이 내려준 보물 우리의 땅
5	김도윤	수원	영동	우리의 2040년 국토 알아보기
6	손지효	수원	영일	과거와 현대가 함께 머물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수원
2	유승우	대구	영신	만약 내가 시장이라면
6	박시은	대구	영신	코로나로 뿌려진 새로운 씨앗
5	심하윤	창원	사파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사생활
3	오재빈	대구	영신	깨끗한 우리 국토 만들기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4	최승태	대구	영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생활모습은 어떻게
6	조윤성	창원	사파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4	김가흔	창원	사파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5	김교운	서울	서울매현	우리동네 자랑하기
5	강예림	천안	천안용소	2040년은 어떤 모습일까?
6	최종현	대구	영신	나의 33번째 생일
2	윤서진	안양	귀인	아름아운 우리 땅, 독도
2	최인규	창원	자여	아름다운 섬 거제도
2	박수진	창원	자여	우리동네 이야기
6	최우빈	인천	인천굴포	화재의 경고
4	조수민	성남	늘푸른	푸르고 깨끗한 자연
6	최진	삼척	장원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5	이성민	창원	사파	2040년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5	이진율	문경	점촌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변화
4	김세민	대구	영신	2040년의 우리 국토의 모습
6	김태연	제주	신광	2040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4	김예준	거제	삼룡	나는 미래의 거제 시장
3	이유리	부천	상인	내가 원하는 우리 도시
3	이효담	창원	사파	살기 좋고 깨끗한 우리나라
6	이승원	창원	사파	내가 시장, 군수라면 우리 도시, 마을을 이렇게 가꿀래요
4	정아정	경산	성암	작은 행복
4	조보금	창원	사파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4	남경민	대구	대구매호	우리의 텃
6	김요한	세종	새움	아름다운 국토 사랑
5	김가람	부천	상인	미래의 인공지능 친구
6	민동균	대구	영신	코로나19로 느낀 국토사랑
3	박채유	서산	성연	코로나19 물러나라!
4	임민영	부천	석천	내일부터는 안돼요
1	송소담	대구	영신	사실 나는 대구에서 태어난게 아니다.
3	홍준성	대구	영신	할머니덕
6	전이정	대구	영신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땅
6	문설희	창원	사파	독도는 우리땅
5	최지혁	창원	사파	2040년 우리 국토의 모습
4	이준서	창원	사파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기위한 나만의 슬기로운 생각
4	조정훈	대구	영신	자랑스러운 우리동네
4	박정은	대구	영신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대구
3	박다연	창원	사파	2040년의 우리 미래
3	조정원	대구	영신	혼저옵서예
6	전기찬	대구	영신	내가 대구시장 이라면
5	한수정	서울	서울매현	2040년에는 어떤 것들이 발달될까?
5	신동현	대구	영신	깨끗한 우리 지구!
6	김인후	대구	영신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살고 있다.
2	김예은	안양	귀인	사랑하는 나의 독도!
2	하혜원	창원	자여	나의 고향 아름다운 자여마을

학년	이름	지역	학교	제목
6	여유빈	구미	구미왕산	코로나 그 이후 우리들은 코로나 세대
6	이호림	대구	영신	2040년 한 초등학생의 일기
6	천지우	창원	사파	살기 좋은 국토, 깨끗한 국토 만들기 위한 나만의 슬기로운 생각
2	민태성	창원	자여	우리동네 한 바퀴
5	허은재	대구	영신	코로나 때문에 바뀐 내 생활모습
6	한송연	제주	신광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토,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6	김하은	제주	신광	2040년의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
2	임찬	안양	귀인	20년 뒤에는 어떻게 동네가 변할까?
5	최정민	창원	사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고장 이야기
2	최지후	안양	귀인	일상생활 어떻게 변했나?
3	유나경	천안	천안남산	코로나19 시대의 학교

## 지도교사상

구분	학교	지도교사
국토교통부장관상	상인(경기 부천)	최한송 교사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영신(대구)	배덕현 교사

※ 학교별 참가자 20인 이상 지도한 교사 대상

## 단체상(학교)

구분	구분	단체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영신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사파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해당학교 없음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해당학교 없음

※ 학교별 참가자 20인 이상





2020년 제25회 전국 초등학생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우수작품집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일            2020.11.17  
발행일            2020.11.20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전 화              044-960-0125  
팩 스              044-211-4771  
ISBN               979-11-5898-577-6

© 2020, 국토연구원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